metro
메트로 2014년 3월 5일 수요일 제[illegible]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박주영, 그리스 평가전 관심

개구리야 나하고 놀자!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6일)을 이틀 앞둔 4일 오후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을 찾은 한 어린이가 짝짓기 중인 개구리를 만지며 신기해하고 있다. 기상청은 5일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린 뒤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다고 예보했다. /연합뉴스

기지개 켜는 웨어러블 기기 시장

과연 올해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개화기를 맞을 수 있을까.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성황리에 폐막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4에서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웨어러블 기기였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기어의 후속작인 '기어2' '기어2 네오' '기어핏' 등 3종의 웨어러블 기기를 선보였고, 중국 화웨이는 피트니스 트래커(Fitness Tracker)인 '토크밴드 B1'을 공개했으며 소니는 '스마트밴드'를 소개했다.

실제로 웨어러블 기기는 방송에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됐다. JTBC '히든싱어2'에서 방송인 전현무가 '갤럭시 기어'를 착용한 채 투표 결과를 받아 발표하는 모습, SBS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 시즌3'에서 참가자들이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한 채 미션을 확인하는 모습 등은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

다만 지난해부터 구글글라스, 갤럭시 기어를 필두로 출시된 웨어러블 기기가 시장성을 인정받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독자적 기능의 부재를 웨어러블 기기의 최대 난제로 꼽으며 시장의 성공 여부에 의문부호를 찍었다.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의 보조용 기기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자체 웨어러블 기기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3종 출시, 中 화웨이·소니 재비
시계·안경·헤어밴드형까지 모델도 다양

이제껏 디바이스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 라인업을 새롭게 선보인 데 대해 업계에선 웨어러블 기기를 새 먹거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역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시장의 규모가 제법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웨어러블 기기는 라이프스타일 관련 기능과 피트니스 관련 단말이 대부분으로, 라이프스타일 관련 기능은 스마트폰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피트니스 관련 기능은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캐나다 소재 컨설팅업체인 밴드리코(Vandrico)에 따르면 시중에 출시된 118개 웨어러블 기기를 조사한 결과 라이프스타일과 피트니스 관련 기기가 각각 83개와 4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웨어러블 기기가 이용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시장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원하고, 웨어러블 기기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시계형, 안경형, 헤어밴드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델 출시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웨어러블 기기가 시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한 기능 외에 특화된 기능 제공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기어핏에 장착된 심박 센서처럼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어떤 서비스로 연계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웨어러블 기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llegible] 기자

등산배낭 70%가 용량 부풀려

소비자시민모임 조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등산용 배낭 20개 중 14개 제품의 용량이 표시 용량에 못 미치는 '사실상 뻥량'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4일 등산용 배낭 20개 제품을 비교 시험한 결과 14개 제품이 표시 용량보다 실제 용량(30ℓ 기준 -2ℓ 까지)이 작았다고 밝혔다.

특히 솔트레 제품의 경우 실제 용량이 표시 용량의 60.0%에 불과했다. 게다가 내구성 상대적 시험에서도 제품별로 차이가 많이 났다.

밑판과 몸판 사이의 봉제 강도를 나타내는 봉합강도 평가에서는 최대 943N(휴몬트), 최소 281N(시우스콜)으로 3.4배나 차이가 났다.

어깨끈의 부착 강도 평가에서는 코오롱스포츠(1678N) 제품이 가장 튼튼했다. 하지만 시우스콜(633N) 제품은 강도가 약했다. 에스피크(880N) 제품의 손잡이가 가장 견고했지만 투스키로라(259N) 제품은 손잡이 부착 강도가 약했다.

바깥 힘에 대한 주 원단의 저항력 시험에서는 팀버라인, 트렉스타, 쿠드모레이 제품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오스프리 제품이 가장 낮았다.

지퍼 등 금속성 부품의 부식성 시험에서는 솔트레·트렉스타·휴몬트·BFL아웃도어 제품의 품질이 떨어졌다. 레인커버의 빗물 테스트에서는 팀버라인 제품의 방수 기능이 미흡했다.

배낭 제품의 표장 도금 [illegible] 검사 결과 내식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솔트레(사진 왼쪽)과 트렉스타 제품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신임 대법관 인사받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뒤 기념촬영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신 교환·화상상봉 北과 협의"

박대통령,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이산가족의 서신교환과 화상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측과 협의하라고 당국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제안한 것도 이제는 더이상 이산가족들이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며 "남북한에 있는 많은 이산가족들이 한을 안고 돌아가셨는데 생존한 가족들이 한번이라도 헤어진 가족을 만나려면 상봉 규모를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화상상봉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통일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듣고 역량을 수렴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 "먼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준비하고, 단순한 분단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위해 통일과정은 물론 통합 과정까지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접근도 용이하게 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릴 방안을 찾기 바란다"며 "시민·복지단체 등 민간과도 협력해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정우기자 ljw@metroseoul.co.kr

새 광주야구장 이래서야…

기자 수첩
양성운 <연예스포츠부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건설한 새 야구장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994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쏟아 부으며 야구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관중을 위한 배려심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장 아쉬운 점은 경기장 좌석의 눈높이다. 야구장을 찾은 팬이라면 신나는 응원도 중요하지만 경기를 관람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새 구장은 경사가 낮고 하단스탠드의 난간이 너무 높아서 경기 관전이 불편할 정도다. 지난 1월 시관 조침 투어를 진행한 후 시장 인터넷사이트 민원게시판에는 한동안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이어졌다.

좌석 각도도 문제다. 바비큐존은 그라운드 쪽을 향하고 있지만 절반은 목을 돌려 경기를 봐야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반면 문학구장의 바비큐존은 경기장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배치해 야구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긴 경기시간 동안 심심한 입을 달래주기 위해 치킨, 대형소시지 등을 판매하는 부스도 늘었다. 1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해 야구장을 만들었지만 야구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것보다 부대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기아 챔피언스필드는 화려한 외형보다 소비자의 눈높이와 목소리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서비스의 기본을 일깨우게 한다.

김상곤 경기지사 출마 선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4일 교육감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더불어 행복한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길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추진하는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치동맹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지평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저 또한 절박한 시대적 부름을 앞에 부족한 능력이나마 기꺼이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

추기경님 축하해요! 염수정 추기경이 4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서임 감사 미사를 마치고 한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북 이번엔 방사포 '무력시위'

오전 구형 3발·오후 신형 4발 발사… 군 "추가도발 주시"

북한이 4일 오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300㎜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오후 4시 17분 1발을 시작으로 4시 57분에 1발, 5시 7분에 2발을 잇따라 발사했다. 이날 오전 6시에는 구형 240㎜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3발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해 이날 하루만 신형·구형 방사포를 포함해 총 7발의 방사포를 동해로 발사했다.

북한의 이날 잇단 방사포 추정 발사체 발사는 사거리 500㎞가 넘는 스커드-C 혹은 스커드-ER 추정 단도미사일 2발을 전날 발사한지 하루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날 발사된 300㎜ 신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의 사거리는 155㎞ 수준으로 알려졌고, 구형 발사체의 사거리는 55㎞로 추정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정보자산으로 북한군의 추가 발사 및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행동은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해 사거리가 다양한 발사 수단으로 무력 시위성 위협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학철기자

尹외교 유엔 이사회에 '위안부' 제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직접 국제사회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4일 외교부는 윤 장관이 이날부터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기여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인권이사회 참석을 검토하다가 막판에 이를 철회했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 다시 입장을 변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5일(현지시간)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북한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함을 우려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정기자

서울동물원 재개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무기한 휴장 조치를 취했던 서울대공원 내 서울동물원이 4일 다시 문을 열었다. /뉴시스

정시 합격자 40% "반수 계획"

201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10명 중 4명가량은 반수할 생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평가전문기관 유웨이중앙교육은 지난해 12월 26일~올해 1월 5일 수시 합격자 623명과 지난달 24~28일 정시합격자 6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정시 합격자의 42.5%가 '반수 의향이 있다'고 4일 밝혔다.

수시 합격자는 23.4%가 반수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시 합격자들은 대학 합격전략으로 고3(57.1%)과 N수생(52.2%) 모두 소신 적정 지원을 꼽았다. 상향 지원이라는 답변은 ▲고3 23.2% ▲N수생 24.8%, 하향 지원은 ▲고3 19.7% ▲N수생 23.0%였다. /윤다혜기자 ydh@

서초동 살인 용의자 투신 자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모(38)씨를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조모(39)씨가 4일 오전 서초동 다른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초동 J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조씨를 아파트 경비원이 화단에서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숨진 조씨의 주머니 안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조씨는 유서에서 '내가 이씨를 살해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날 오후 3시15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목과 배 부분을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와 조씨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원한 때문에 조씨가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다혜기자

금연 캠페인 마라톤 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1일 춘천에서 3·1절 기념 경락 단축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외국 담뱃갑의 충격적 사진을 홍보 패널로 전시해 시민들에게 흡연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나라도 담뱃갑에 흡연 경고사진 부착을 촉구했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성철

훌라후프 상표권 등록

1959년 2월 5일 미국의 마사 챌린이 훌라후프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훌라후프의 훌라는 하와이의 훌라춤을, 후프는 고리를 의미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놀이로 호주에서 운동기구로 쓰이던 대나무 고리를 본따 1958년 플라스틱 고리를 만들어 훌라후프라고 이름을 붙였고 1개당 1.98달러의 값을 매겨 미국시장에 내놓은지 1년 만에 1억개를 팔았다. 소련에서는 미국문화의 공허함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판매가 금지되었고, 일본에서는 엉덩이를 흔들며 돌리는 모습이 풍속사범이라 해서 공공장소에서는 돌리지 못했다.

천안 축산과학원까지 AI

오리 축사서 발견… 감염 경로 추적 중

충남 천안의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내 오리 축사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인됐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과학원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씨시제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밝혀졌다"며 "원인을 규명해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축산과학원에서 AI가 발생한 사실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3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발병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축산과학원 내 4개 저수지에 하루 20~30마리 철새가 찾아온 점 ▲분변 처리를 위해 자체 보유 차량을 이용해 축사를 출입한 점 ▲축사에 깔짚을 새로 넣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이다.

천안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는 재래 닭 1만1000마리와 토종 오리 4500마리를 사육 중이었으며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다행히 재래 닭은 축산과학원 수원 남원 연구소에서 약 3200마리를 보존 중이고 토종 오리는 경기 용인의 시험 농가 3곳에서 1만1500마리를 기르고 있어 유전자원 보존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씨닭 농장에서 발생한 AI는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방역당국은 이날 반경 3km 안에 있는 농장 1곳 오리 5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로써 이날까지 살처분한 가금류는 314개 농가의 698만5000마리로 집계됐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동생 없는 아이 30년 새 절반

둘째 셋째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동생' 없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생 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둘째아 출생아 수는 16만5900명,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4만5300명으로 둘째아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는 모두 21만1200명이었다.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1981년 50만 명을 넘었지만 이후 1983년 42만여 명, 1993년 34만여 명, 2003년 24만여 명, 2011년 23만여 명으로 급감했다. 30년 새 절반 넘게 줄어든 셈이다.

첫째 출생아 수가 34만4208명에서 22만4700명으로 34.7% 줄어든 것과 비교해도 둘째 이상 출생아의 감소폭은 더 급격하다.

1981년에는 첫째로 태어난 아이(35만5314명)와 동생으로 태어난 아이(51만2085명)의 비율이 4대6으로 동생 쪽이 더 많았다. 그러나 2013년에는 첫째 출생아(22만여 명)가 동생 출생아(21만여 명)보다 많아졌다. /김민준기자

교사 명예퇴직 50%만 허용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2명 중 1명은 예산이 없어 퇴직 신청이 반려됐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지난달 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5164명 가운데 54.6%인 2818명만 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명예퇴직 수용률이 50%대로 낮아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올해 명퇴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962명(22.9%) 늘어났으나 시·도교육청의 명퇴 수당 예산이 부족해 수용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다혜기자

고액 체납자 신고하면 포상

서울시가 상습 고액 체납자의 체납 행위를 제보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장 이혼 등 시기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4일 '2014년 시세 체납 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세와 구세 체납이 겹쳐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징수 활동까지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태스크포스(TF)팀'을 도입한다.

또 고액을 체납한 재벌 총수, 정치인, 의사 등 저명 인사 특별관리 대상 3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에 대해선 수시로 거주지 조사,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압박할 방침이다.

특히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설치해 징수한 체납 세금의 1~5%(최대 1000만원)를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김현정기자

발걸음 빨라진 지방선거 후보자들

기자 수첩
정 하 균
<부산 주재 기자>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도전자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민심을 얻으려는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어떤 예비 후보는 아침 일찍 지하철, 버스를 타고 시민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기도 한다.

때론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 위로하며 아픔을 함께 나눈다. 특히 출판기념회를 통해 도전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며 뜻을 모아 힘을 합치기도 한다.

어쩌면 이러한 행보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당연히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 돼버렸다. 하지만 지역 구·군·시의원들의 얼굴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인 지금, 꼭 선거 때가 되면 못보던 얼굴들을 마주하게 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이다.

주역 '손(巽)괘'에 나오는 명언 중에 무초유종(无初有終)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자면 시작은 없으나 끝은 있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어렵다가 나중에는 좋아진다'는 의미로 역사적 사건을 비유하는 해설가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이 말은 다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급해 않는다면 그 끝은 자명하다는 말로도 인용되기도 한다. 누구나 시작할 때 또는 그 어떤 도전에 나서고자 할 때 사람들은 물심양면으로 노력한다. 또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줄 것처럼 남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후보자들에게 혼실살인(?繳殺人)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자 노력할 때도 마찬가지다. 처음 시작은 설레고 의욕에 불타올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다.

그러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보다 그것을 성취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

가장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헌신적이고 만초들을 아끼며 사랑해줄 수 있는 장(長)들이 나와주기를 주역의 명언을 빌려 기대해본다.

칭다오 취항 2주년 에어부산 '1+1 왕복 특가' 홍피 이벤트

에어부산(대표 한태근)은 4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칭다오 취항 2주년을 기념해 1명의 항공 운임으로 2명이 사용 가능한 '1+1 왕복 특가' 홍페이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탑승 기간은 이날 5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왕복 기준 총액운임(기본운임+유류할증료+공항시설사용료)은 2인 기준으로 부산~칭다오 32만8800원(1인당 16만4400원)이다.

더불어 항공권 구매 고객에게는 칭다오 샹그릴라(5성급) 호텔 1박+조식을 9만원에 제공한다. 또 항공권과 5성급 호텔을 약 42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해기사 양성과정 입교식 열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전찬락)은 지난 3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육상의 청년 실업 해소 및 해양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입교식 후 교육생들이 행정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부경대 2014학년도 입학식 부경대학교(총장 김영섭)는 지난 3일 오전 대연캠퍼스 체육관에서 신입생 3752명, 편입생 322명, 계약학과 편입생 44명, 외국인 학생 40명 등 총 4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학년도 입학식'을 가졌다.

시정홍보 아이디어 찾아요

시, 대학생 대상 모바일 활용 마케팅 공모전 · 5월말까지 기획안 접수

부산시가 스마트폰 사용인구 4000만 명 시대에 부응하고 획기적인 모바일 시정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3회 대학생 마케팅 기획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내 손안에 부산을'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 마케팅 전략 및 실행 계획 ▲카카오톡 및 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한 시정홍보 마케팅 전략 및 실행 계획 ▲부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합 이용 앱(3월 출시) 확산 홍보 전략 및 실행 계획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휴학생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생으로 반드시 2인 이상 팀을 이뤄야 한다.

시는 1차 기획안 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수상팀을 결정한다. 이는 1차에서 선정된 팀이 2차 발표 경쟁을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이다.

공모전 참가는 부산시 블로그 '공부산(blog.busan.go.kr/2752)'에서 참가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5월 31일까지 기획안을 접수하면 된다.

수상팀에게는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과 시장상 등 총 4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 할 계획이다. 채택된 기획안은 앞으로 부산시 온라인마케팅 정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3월 카카오톡 및 카카오스토리에 소통 채널을 개설하는가 하면, SNS 통합 이용 앱을 출시해 올해 스마트폰을 통한 시민 소통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 대변인은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폰을 활용, 온라인 소통에 적극적인 대학생들로부터 도시 브랜드 및 시정 마케팅에 대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학생들에게는 자기계발의 기회이자 부산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선거아카데미 순회 개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인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 및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입후보예정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거아카데미는 이날 5일 동구청 대강당, 6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 7일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5시20분까지 진행된다.

선거아카데미는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안내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규 및 위반사례 안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조달 및 지출 방법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이해 등 지방선거 참여자들이 선거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 위주의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등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거아카데미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하균기자

토종 조벌부추 수확 4일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들녘에서 농민들이 겨우내 언 땅을 뚫고 나온 토종 부추를 수확하고 있다. 봄에 처음 베어 먹는 새순인 토종 조벌 부추는 '사위에게도 안 준다'고 할 만큼 강원 식품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초미세먼지 측정소 8곳→12곳

부산시는 중국발 스모그 유입으로 인한 고농도의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스모그가 자주 날아들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부산 전역에 발령됨에 따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초미세먼지 대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재 8군데 설치돼 있는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상반기 중 1억2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4군데 더 설치해 모두 1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추가로 측정이 필요한 9곳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올해 안에 초미세먼지 측정소 구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97곳에 대한 특별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 1개 반 2명을 증원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진공 흡입 물청소차 29대를 주 1회 격주 반 번씩 운행하던 것을 매일 3회씩으로 늘려 가로의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총 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천연가스 자동차 205대에 51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100대에 31억원, 저공해 자동차 보급 1750대 53억원, 전기버스 운행 시범사업에 1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목욕탕과 찜질방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청정 연료 사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비 9억원을 들여 영세 사업장 100곳의 보일러 버너를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주는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뉴시스

부전도서관 상업 개발 추진 '논란'

시민사회단체·학계 "재검토해야" · 부산진구 "보존 필요성 없어"

부산시 부전동에 위치한 시립부전도서관이 상업시설이 포함된 도서관으로 개발 추진 중에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는 근대를 기억하게 해주는 장소와 건물들이 곳곳에 자리해 있다. 시립부전도서관 역시 부산의 근대사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켜왔다.

부산진구청은 시립부전도서관이 서면특화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낡은 건물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난 3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업시설이 포함된 도서관 개발을 반대하며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전문가들의 지문을 받아 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쇼핑몰과 유흥주점이 몰려있는 서면특화거리 안에서 부산의 근대를 간직하고 있는 부전도서관이야말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라며 "도서관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부전도서관을 상업시설을 포함하는 개발로 추진다면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면학 분위기가 훼손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시립부전도서관이 근대 건조물 보호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며 "멸실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개발 추진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진구가 시의회의 의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정하고 건물 일부를 임대계약하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구청의 지원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돼 구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초과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금에 대해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부전도서관 인근에는 수많은 쇼핑몰과 음식점 유흥주점 등이 몰려있다"며 "굳이 도서관 건물까지 그런 시설들로 채워야 하는지, 그 근거를 설명해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킨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 문헌정보학과 교수협의회 회장 및 부산대·동의대·경성대·신라대 등 부산지역 4개 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들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부전도서관 건물을 근대 건조물로 지정하고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역사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산시 전역에서 하루 평균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어 도서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살리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하균기자 jlk@metroseoul.co.kr

경성대 학업증진상 수여 경성대학교 총장 송수건은 지난 3일 오후 정보관 1층 회의실에서 직전 학기보다 성적이 월등히 상승한 학생들에게 부산교 외 학업증진상을 수여했다.

사직구장 전광판 교체 '새단장'

"2014 프로야구·축구 개막을 앞두고 부산 사직야구장과 주경기장이 새뜻하게 변신한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9일 프로야구 개막전(롯데 자이언츠 대 한화 이글스)을 앞두고 국비와 시비 39억원을 들여 사직야구장 전광판을 미국 메이저리그 구장 못지않은 LED 시스템의 풀 컬러 전광판(미국산·가로 35m×세로 15m)으로 교체한다고 4일 밝혔다.

새 전광판 설치 작업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17~24일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전광판뿐만 아니라 방송 스피커와 장비 등 구장 내 음향시설도 국비와 시비 10억원을 들여 미국 메이저리그 시스템을 도입한다. /연합뉴스

어린이 정보화 퀴즈대회

부산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은숙)는 오는 2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정보화 퀴즈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OX퀴즈와 단답형 등으로 문제를 내는 TV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중구 거주 초등학교 5~6학년 50여 명으로 오는 14일까지 접수한다. 참여 희망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bsjunggu.go.kr) 또는 관내 초등학교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온 종합병원 암센터 본격 가동

부산 온 종합병원(병원장 정근·사진 오른쪽 넷째)은 지난 3일 병원 3층에서 '암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온 종합병원 정근 병원장과 최경현 암센터장, 뇌종양센터 이동엽 원장, 신경센터 노순기 부원장, 갑상선·유방센터 유성목 센터장, 영상의학센터 구봉식 소장, 메리놀병원 방사선종양학과(과장 박정호)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온 종합병원은 이번 암센터 개소를 위해 지난해 5월 부산의료원과 64채널 PET-CT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에는 메리놀병원 방사선종양학과와 방사선 치료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암 진단과 치료에 있어 대학병원 못지않은 원스톱 진료 협력 시스템을 구축, 향후 지역 병원 혈액학과와의 협력도 모색 중이다.

암센터는 온 종합병원이 지난해 3월 정근안과병원빌딩 5~6층에 새롭게 확장 개소해 운영 중인 부산 유일의 종합병원 단독 건강검진센터에서 축적된 암 조기 진단 노하우와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수술부터 치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지역 암환자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온 종합병원 정근 병원장은 "개원 4주년을 맞이해 지역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암센터를 개소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암환자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형 병원을 어렵게 찾아가지 않더라도 수준 높은 진단과 수술 치료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로봇의사 체험하세요 부산대병원이 3일 마련한 '로봇수술 교실'에서 학생들이 로봇수술 기기를 체험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어린이와 대학생들에게 의학·공학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의약품 등 민원설명회

부산지방식약청은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부산지방청 강당에서 관내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4년 의약품 등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14년도 사후관리 기본 방향 ▲법 개정에 따른 인허가 변경 사항 ▲정기감시 및 실태평가제 운영계획 등이다.

특히 2015년부터 전면 의무화되는 한약재 GMP의 조기 정착을 위한 한약재 제조업체 교육 지원과 화장품법 개정 이후 증가한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현장 컨설팅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지방청 관계자는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등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각종 간담회 등을 개최해 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지하철역 개 동상 "지켜달라"

metro Russia

코 부분 만지면 '소원'

최근 러시아의 한 시민단체가 모스크바 '플로샤지 레볼루치'(혁명광장) 지하철역에 놓인 개 동상을 지켜달라고 시 정부에 호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30년대 개 동상이 설치된 뒤 수십 년 동안 모스크바 시민들은 동상의 코 부분을 만지며 소원을 빌고 있다. 동상이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어서다. 하지만 지금은 동상의 코 부분이 완전히 닳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모스크바 건축감독 위원회의 알렉산드르 모자예프는 "개 동상의 코를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덕분에 지나가는 시민 열 명 중 세 명 이상은 개 동상의 코를 여루 만지고 간다"며 "심지어 이 동상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분에 20~30명이 줄을 서서 만지기도 한다"며 "모스크바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현 상황에서 보수공사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자예프는 모스크바지하철공사와 문화유산관리국에 개 동상을 보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는 "현재 개 동상이 너무 닳아 그 형태를 잃어버릴 정도"라며 "개 동상을 박물관으로 옮기거나 견고한 소재로 만든 복제품을 전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개 동상 옆에 '비위생적이니 만지지 마시오'란 팻말을 설치하자" "개 동상을 180도 돌려 닳아버린 코 부분 대신 꼬리부분을 만지자"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동상 보호 운동을 지지했다.

/다리야 부쉬노바 기자·정리=손진영 기자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러시아, 크림반도 사실상 장악

1만6000명 배치 · 美 철군 강력 촉구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는 현재 '유령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4일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INYT)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한 러시아군의 모습을 이같이 표현했다. 무장한 러시아 군인들이 소리 없이 크림반도를 장악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총성도 울리지 않고 적과 마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1만6000명을 파병, 주요 국경과 군사시설에 배치하는 등 크림반도 장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러시아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 해군에 항복을 권유하는 최후통첩을 했다는 보도가 다오기도 했지만 흑해함대는 보도 내용을 공식 부인했다.

현재 크림자치공화국 국경 검문소와 군사시설, 여객선 터미널은 모두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주 군사훈련에 참가했던 군 병력에 원대 복귀를 명령했다.

4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공보비서(공보수석)는 푸틴 대통령이 군사훈련이 성공적이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병력 복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서부와 중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15만 명의 병력과 헬기 120대, 탱크 880대가 동원됐다.

푸틴 대통령은 군 병력의 원대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크림반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방 국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자국으로 도피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러시아군의 파병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러시아와 비자 면제 협상을 중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조선미 기자 seonmi@metroseoul.co.kr

축구공 드레스 3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카니발에서 개성 만점 '축구공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AFP 연합뉴스

中 학자 "올 성장 8% 가능"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올해 중국 경제가 8%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정샤오리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전날 미국 뉴욕에서 현지 언론에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이사장은 지난해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서비스와 기반시설 등에 투자를 유도해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확대됐다면서 8% 성장을 낙관했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성장 목표를 전년과 같은 7.5%로 제시했다. 실제 지난해 성장률은 7.7%였다.

중국 정부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 목표치를 발표한다.

日 방사성 오염수 넘칠 우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이 담긴 오염수를 탱크의 99% 높이까지 채워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루에 400t씩 나오는 오염수를 탱크에 저장해온 도쿄전력은 저장시설 부족으로 탱크가 넘치기 직전까지 물을 주입하고 있다.

원래 탱크의 96%가 채워지면 1차 경보가 울리고 펌프가 자동으로 멈추지만 이 경보를 해제한 뒤 오염수를 더 주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진이 발생해 탱크가 흔들릴 경우 오염수가 쏟아져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현 주민의 83%가 정부와 원전 운영사의 방사능 오염수 대처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미 기자

market index <4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54.11 (-10.53)	531.54 (+1.65)	2.91 (+0.02)	1071.00 (+0.30)

2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에 머물렀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상승했다. 가편된 기중치를 반영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0.9%로 잠시 0%대로 떨어졌다가 11월 1.2%, 12월 및 올해 1월 1.1%를 보이며 1% 언저리에 머물러왔다.

물가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1.7% 상승해 1월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제외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상승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2월보다 0.4% 올라 지난해 9월 0.2% 상승률을 보인 이후 6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다.

/김민지기자

뉴스 & 뉴스

'제주미썸'으로 오세요! 4일 서울 봉개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진행된 제주 특산물 전문매장 '제주미썸' 2점 행사에서 모델들이 제주 특산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신규분양 3배 급증

● 지난달 전국적으로 신규 분양된 아파트가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일반 분양된 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7432가구다. 이는 2008년 이후 동월 대비 가장 많은 물량으로, 작년(3344가구)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었다. 전월(2622가구)에 견줘서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월은 통상적으로 분양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의 경우 1월 이른 설 연휴로 인해 일부 단지의 일정이 미뤄진 데다, 대구·부산 경북 등 청약 인기가 뜨거웠던 지역에서 대거 물량이 쏟아지며 신규 공급이 크게 늘었다. /이선화기자

주식 투자 인구 481만명

●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의 주식에 투자한 인구는 481만 명, 실질 주주 1인당 평균 보유 종목은 3.37개였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3년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장·프리보드 시장 1810개사의 실질주주는 1407만 명으로 중복을 제외한 481만 명(법인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규모다.

개인 주주가 전체의 98.9%를 차지했고 법인(0.5%), 외국인(0.3%) 순이었다. 실질 주주 1인당 평균 보유 종목은 3.37개(1만3969주)였다. /김현정기자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송월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7

발행인·대표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충학
편집국장	조민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명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753-2900
독자센터	(02)721-9185

2002년 5월 31일 창간 (신문등록 서울특별시 가00308)

"한은 통화정책 큰 이변 없을것"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 '이주열 새 총재 내정' 관련 기준금리 전망

한국은행의 새 총재로 이주열(사진) 전 한은 부총재가 내정됨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 총재 교체에도 당분간 통화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국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노무라증권 권영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위험이 모두 없으므로 새 총재가 이끄는 한은에 상당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기준금리 2.50%는 이미 경기 부양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한은이 3분기까지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다가 국내총생산(GDP) 갭의 마이너스 상태가 끝나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4분기에 2.75%로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도 "이주열 차기 총재 내정자가 취임한 후에도 당분간 현재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와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ANZ 레이몬드 융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차기 총재를 김중수 총재보다 더 매파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총재가 바뀜에 따라 즉각적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결론 내리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중수 총재의 임승태 금통위원이 떠나도 다수인 5명이 금통위에 남아 현재의 거시경제 평가가 유지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삼성증권 이승훈 이코노미스트는 "관례나 파격 인사가 내정됐을 경우에 비해선 상반기 중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금융업계 한 관계자도 "이 내정자는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편이라 의사 결정에서 경제 전망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문기기자 moon@metroseoul.co.kr

"이것이 컬러 마크 센서"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5회 국제공장자동화전(amex 2014)'에서 관람객이 한 업체 관계자에게 측정 대상의 마크 색상을 인식하는 컬러 마크 센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7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매년 300만명 '13월의 월급' 토해냈다

'13월의 월급'이 이제는 '옛말'이 됐다. 매년 300만여 명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4일 국세청은 '2012년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분석한 결과 1577만 근로소득자 가운데 각종 공제 후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1054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근로소득자 10명 가운데 6명(66.8%)이 세금을 다시 토해낸 셈이다.

지난 2012년 매달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이는 1284만 명으로, 이들이 낸 세금은 총 23조2157억원에 달했다. 이는 1054만 명에 대한 결정세액 19조9712억원보다 3조2445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2~3월 급여일을 통해 차액을 정산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급을 받은 사람은 990만 명(4조668억원)이었으니 353만 명은 총 1조4236억원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했다.

2011년에는 294만 명, 2010년에는 272만 명이 세금을 더 냈다.

특히 올해 소득분부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에 중산층에서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백아란기자 alive0813@

우크라이나에 놀란 투자자

안전한 金으로 러시 금ETF 최근 순유입

우크라이나 사태 등 끊이지 않는 대외 불안에 안전자산인 금에 돈이 다시 몰리고 있다. 금 상장지수펀드(ETF)에는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4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 상장한 주요 ETF에는 금과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자금이 유입됐다. 특히 2월 금 ETF에는 201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 기간 금 ETF에 4억4000만 달러(약 470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강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값 하락으로 빠져나갔던 금 ETF 자금이 최근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금값이 반등하자 들어왔다"고 전했다.

국내 ETF가 주로 주식형 투자로 설정된 반면 미국 ETF는 주식은 물론, 금·은·농산물·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다. 강 연구원은 "따라서 이들 ETF의 자금 동향을 보면 전 세계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 금값이 136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영원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면 금값이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현정기자 hjkim@

'국민 아빠차' 쏘나타 7번째 신고식

LF 첫인상 '안전 또 안전'

국내 언론 앞에서 재현한 美 IIHS 스몰 오버랩 시험 A필러도 앞도어도 '멀쩡'

초고장력 강판 비율 51% 신형 제네시스 수준 강화

승객 무게·자세 감지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 장착

4일 현대차 남양연구소 충돌시험장. 시퀀을 앞두고 적막이 흘렀다. 카운트다운이 들려오고 이어서 시속 64km의 속도로 신형 LF 쏘나타(사진)가 달려오더니 굉 소리를 내며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시험되는 미국 IIHS의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재현한 것. 신형 쏘나타의 앞부분은 처참히 구겨졌으나 A필러는 멀쩡했고 앞 도어도 그대로 닫혀 있었다.

현대차는 4일 국내 언론을 남양연구소로 초대해 신형 쏘나타의 안전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줬다. 신형 쏘나타는 지난해 말 데뷔한 신형 제네시스와 마찬가지로 차체 강성을 높이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우선 초고장력 강판 비율을 51%로 높여서 제네시스(51.5%) 수준으로 강화했다.

현대차 차체 설계실장 양희원 이사는 "승객이 거주하는 캐빈룸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핫 스탬핑 공법을 사용한 강철을 B필러에 이중으로 적용함으로써 측면 충돌 안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덕분에 YF 쏘나타에서 적합(Acceptable) 등급을 받았던 안전성이 좋음(Good)으로 향상됐다.

◆어린이도 안전한 에어백 갈력

신형 쏘나타에서 돋보이는 부분 중 하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의 적용이다. 그동안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국내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발 압력을 줄인 디파워드 에어백을 적용해왔다. 어드밴스드 에어백은 여기에 승객의 무게와 자세를 감지하는 센서를 추가해 성인이나 어린이 등 탑승자와 체구에 따라 에어백의 폭발 압력을 세분화해 조절하므로 안전성이 더 높다. 현대차 중대형 PM센터 황정렬 상무는 "신형 쏘나타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적용했을 뿐 아니라 보행자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면서 "에어백 전개 로직에 경우의 수를 더 많이 반영해 정확성을 더욱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돋보였던 또 하나의 시설은 풍동 시험장이다. 자체의 공기저항을 감소시키는 연구를 하는 이곳에서 공기저항계수(Cd) 0.26의 디자인이 완성됐다. YF 쏘나타가 0.28이고 YF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0.25임을 감안하면 뛰어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차체의 저항을 줄이는 한편 엔진룸 아래 언더커버를 장착해 공기저항을 감소시킨 덕분이다.

신형 쏘나타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국내 중형차 시장은 더욱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게 됐다. 현대차는 이달 24일 신형 쏘나타를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판에 나설 예정이다.

/정의학기자 ferrari@metroseoul.co.kr

중소기업 내수 의존도 심화

국내 판매 비중 10년새 4.2%포인트 증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국내시장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시장에 집중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기업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4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판매 비중이 2003년 81.8%에서 2012년 86.0%로 4.2%포인트 높아진 반면, 해외 수출 비중은 18.2%에서 14.0%로 줄었다고 밝혔다. 국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2003년 55.7%에서 2013년 50.6%로 낮아지는 등 내수 불황 가운데서도 내수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진 셈이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액은 2.2배 증가했고 이 중 국내 판매는 2.3배, 해외 수출은 1.7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지금처럼 국내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 기조와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 증가,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등을 내수 위협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내수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관심의 폭을 넓힐 것을 주장했다. 먼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 방안으로 '마케팅 코디네이터 사업'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내수 의존도 심화 현상을 해소할 방법으로 제품 기획 단계부터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고 '팔릴 제품'을 만들자는 취지다. /김태균기자 ksat@

보고타 화력발전소에 현대제철 H형강 공급

최근 건축 구조용 H형강(SHN)이 해외 굵직한 건설 플랜트 건설사업 현장에 연이어 적용되며 건축용 강재 시장의 블루칩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제철은 4일 남미 플랜트 전초 사업인 콜롬비아 보고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국내 최초로 건축 구조용 H형강을 공급, 현장 적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 2월 16일 준공된 우리나라 두 번째 남극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 건설에 적용된 데 이어 사상 첫 남미 플랜트 시장 진출에 성공하면서 제품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종합상사가 콜롬비아 발전 운영사인 테르모타사헤로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오는 2017년 4월에 완공 예정인 160MW급 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김두희기자 kimdh@

빌게이츠 다시 '최고 부자'

자산 81조4000억원 5년만에 1위 재탈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가 5년 만에 세계 최고 부호 자리를 재탈환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3일(현지시간) '2014 세계 부호 순위' 발표를 통해 빌 게이츠가 760억달러(약 81조4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해 세계 최고 부호 자리에 올랐다고 밝혔다.

포브스는 자산 1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부호가 올해 1645명으로 지난해보다 268명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남미 최대 이동통신사인 '아메리카모바일' 총수인 멕시코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이 720억 달러(약 77조1000억원)로 뒤를 이었다.

2014 포브스선정 세계의 부호

한국의 경우 공동 102위에 오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111억 달러(약 11조8000억원)로 자산이 가장 많았다. /김태균기자

삼성전자 무선 사운드바 출시 삼성전자는 4일 TV 아래에 무선으로 설치하는 새 오디오 기기 사운드바(Soundbar) HW-F150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리얼 메탈 소재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55인치 이상 크기의 커브드 초고화질(UHD) TV와 조화를 이루는 제품이다. /삼성전자 제공

구본무 LG회장 "고객 눈높이서 일하라"

구본무 LG 회장이 4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임원세미나에서 "구성원 스스로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 실행하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냈다는 성취감이 조직 내에 가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원세미나에는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과 임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고객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상품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고객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며 "경제 그리고 기술의 변화가 고객의 삶과 우리 사업에 미칠 영향까지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구 회장은 "우리가 승부를 걸기로 정한 분야들은 직접 사업 책임자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며 "사업 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리더들은 구성원 스스로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 실행하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냈다'는 성취감이 조직 내 가득할 수 있도록 마음써달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네이처리퍼블릭 미백 기능성 에센스 출시 4일 서울 중구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에서 모델들이 미백 기능성 에센스인 '화이트 더 퍼스트 에센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월 체크카드 8조 긁었다

신용카드 정보유출에 '수혜'… 전년 동월비 승인실적 27% 증가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던 지난 1월 체크카드 승인 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4년 1월 카드승인실적'에 따르면 지난 1월 체크카드 승인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4% 증가한 8조6100억원으로 협회 통계 산출 이래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승인 금액은 38조21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1조9900억원) 늘어났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 1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 승인액이 46조9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 늘었다"며 "여기에는 민간 소비 회복세와 설 연휴 효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설 연휴가 2월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1월 말이어서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점 등에서 제수용품과 설 선물에 관련된 업종의 카드 승인액이 작년 동월보다 27.4% 증가했다. 농축수산물 관련 업종의 승인액도 50.0%나 올랐다.

한편 전체 카드 승인 금액 가운데 신용카드 비중은 지난해 1월 84.0%에서 올해 81.3%로 1년 만에 2.7%포인트 떨어진 반면, 체크카드 비중은 15.7%에서 18.3%로 2.6%포인트 올라갔다.

특히 카드 승인 금액보다 카드 승인건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소액 결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1월 카드별 평균 결제 금액은 5만1259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5만4274원보다 5.6% 감소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체크카드가 생활 밀접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9%로 집계됐다"며 "소비자들이 결제 업종별로 카드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체크카드의 경우 제과점 등 주로 소액 결제 업종에서 사용되는 반면 신용카드는 항공사 같이 비교적 결제 금액이 높은 업종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가은기자 akeel283@metroseoul.co.kr

수익형부동산 '수익 과장' 조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전통적인 월세 상품에 최근 서비스드 레지던스, 분양형 호텔까지 가세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수요 안에서 경쟁적으로 상품을 팔아야 하는 까닭에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자극적인 숫자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분양 중인 A오피스텔은 '1억원에 3채, 월세 200만원' 이라는 전단을 배포했다. 인근 인천시청 근처의 B도시형생활주택은 '5000만원에 2개, 월 90만원 확정'을 광고하고 있다.

그런데 A오피스텔과 B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는 1억원과 5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전단지에 적혀 있는 금액으로는 2~3채는커녕 1채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매달 200만원과 90만원이라는 금액도 주변 시세와 비교해 턱없이 높은 금액이다.

약간의 과장을 감안하더라도 어처구니없는 광고와 현실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이는 분양업계 측에서 말하는 금액과 수익률이 '실투자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분양가에서 대출이 가능한 중도금을 제외하고 계약금과 잔금만 갖고 투자를 유도하는 식이다.

A오피스텔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는 1억원대 초반이지만 60% 중도금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면 3900만원대면 계약이 가능하다"며 "현재 송도 오피스텔 월세가 70만원 정도에 형성된 만큼 1억원에 3채를 투자하면 월 200만원 이상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업계들은 대출만 강조하고 있을 뿐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무이자로 중도금을 빌렸더라도 입주 후 담보대출로 전환되면 이자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A오피스텔은 무이자도 아닌 이자후불제 조건이라 입주를 앞두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이자 폭탄을 맞게 된다.

/서산하기자 pcc882@

우아한 손수 도자기, 앙드레김 스타일 한국도자기가 본격적인 혼수 시즌을 맞아 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앙드레김 아뜰리에에서 디자이너 앙드레김의 독특 세계가 담긴 도자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오는 10일부터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가입 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 용도 주택도 가입 대상 주택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복합 용도 주택의 전체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절반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예정)구역 안의 주택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됐으나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윤정원기자 min@

이번엔 보험사 '정보 집적' 적법 논란

당국, 회사별 분산된 계약정보 통합관리 추진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보험사들의 보험정보 집적 문제의 적법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 상품 특성상 고객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 당국과 국회는 별도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를 일원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정보 집중 기관 일원화 방안이 논의됐다. 그동안 회사별, 협회로 분산돼 있는 보험계약 정보를 하나의 기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신용정보 관리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자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보험정보 관리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 측은 "금융 당국 방안은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를 하나의 기관이 집중해 관리한다는 것"이라며 "신용정보 이외의 다른 고객정보도 집중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이미 금융위와 함께 보험정보를 협회와 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정보 유출로 사안이 민감해지면서 사태가 복잡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일원화 방안으로 보험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위로 그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11월 정례회의를 통해 현행대로 생·손보협회와 개발원이 각각 보험정보를 집중하되 보험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 요율 산출 등 유관 기관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집중하고 이외의 정보는 3개월 이내에 폐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고객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더 개인정보 이슈에 촉각 곤두서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든가 특정 기관이 이를 전담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큰 사건임은 이해하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백상원기자 ...@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영업정지'

'보조금 대란' 이동사 제재 앞두고 휴대전화 판매업자들 울상

이동통신 시장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보조금 대란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잇따른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은 이통사 영업정지는 소상인들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과다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 3사에 대해 제재안을 마련, 이르면 1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이통 3사에 사업자 제재 사전 예고 통지서를 보내면서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6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통 3사의 제재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근 계속되는 과도한 보조금 살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불발 등과 맞물려 향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대한 정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 사업자는 사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50%인 45일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통 3사에 최소 45일에서 최장 135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이통 3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통위로부터의 추가 제재도 기다리고 있다. 방통위는 1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다 보조금 살포와 관련 제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다소 부풀려진 부분도 있지만 최근 불거진 보조금 대란을 일부 이통사가 마케팅으로 활용한 정황도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살포 등) 문제가 있었다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방침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래부와 방통위의 잇따른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가 예상되면서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등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불법 보조금의 주범은 통신 사업자와 제조사인데 말단의 소상인만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장기 영업정지는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를 몰락시키는 살인적 판결"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가계통신비 절감의 본질적 대책 마련 ▲방통위의 법적 근거 없는 27만원 보조금 규제 철폐 ▲이동통신 유통 분야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 ▲통신 분야는 담당 업의를 통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검토 ▲이동통신 유통 발전기금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도 마련, 공개했다.

/김형석기자 (gk회원@metroseoul.co.kr)

안드로이드OS 태블릿 아이패드 판매량 추월

지난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태블릿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애플의 아이패드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지난해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태블릿이 127% 증가한 1억2100만 대가 판매돼 세계시장의 62%를 점유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의 태블릿 판매가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지난해 삼성이 전년 대비 336% 성장한 3700만 대를 팔아 전 세계 태블릿 업체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덕분에 삼성의 태블릿 시장 점유율은 19.1%로 전년 7.4% 대비 2.5배 이상 뛰어올랐다.

반면 애플의 아이패드는 지난해 7000만 대가 팔려 시장점유율이 53%에서 36%로 하락했다.

가트너는 "삼성은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태블릿에도 크기와 가격을 세분화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박국희기자 (antoo6)

LG유플 LTE로 작동하는 비행 로봇 시연 모델들이 LTE 기반의 비행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세종대와 빛코먹 공동으로 자동차 비행로봇 시연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넷마블 온라인 액션게임 '파이러츠' 공개

몬스터 길들이기 모두의 마블 등 모바일게임으로 지난해 게임 시장을 평정한 CJ넷마블이 또 한번 온라인게임 접공을 타진한다.

넷마블은 4일 서울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PC 온라인 전략 액션 게임 기대작 '파이러츠: 트레저헌터'를 공개했다.

'파이러츠: 트레저헌터'는 스페인의 버추얼 토이즈가 개발 중인 게임으로 지난해 11월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게임의 특징은 ▲언리얼 엔진3 기반의 극 사실적 그래픽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펼치는 자유롭고 박진감 넘치는 액션 ▲실시간 전략, 3인칭 슈팅, 대전 액션 등 여러 인기 장르의 장점과 재미만을 모아 탄생시킨 혁신적 게임성이다.

또 최대 8인의 팀을 구성해 상대 진영과 맞서 싸우는 것을 기본으로 다양한 게임 모드와 전장을 제공함은 물론 배, 자동차 등의 이동 수단과 기관총, 대포 등의 중화기를 곳곳에 배치해 이용자들이 한층 깊어진 전략성과 진일보한 협동 플레이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강점이다.

넷마블은 '파이러츠: 트레저헌터'의 e스포츠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아마추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PC방 크래쉬 대회'를 매월 1회 각 지역에서 진행하고 상위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대회 '아마추어 리그'를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연내에 e스포츠 공식 프로리그를 운영시킬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zen19

SK건설 '희망 급식소' 마다가스카르에 기부

SK건설은 4일 남아프리카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위치한 한 교육센터에 급식소를 건립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급식소 기부는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이뤄졌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무상 교육센터에 다니는 400여 명의 아동들이 앞으로는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SK건설은 사내 인트라넷 '희망 댓글 캠페인'을 통해 급식소 건립기금을 마련했다. 임직원들이 사내게시판 사연에 댓글을 달면 1000원씩 기금이 모금되는 캠페인이다. 이번 급식소 건립에는 임직원 1700여 명이 참여했고, 총 350만원의 기금이 모금돼 사용됐다.

SK건설은 지난 2013년 2월에도 마다가스카르 포산나파교에 급식소를 지어 기부한 바 있다. /서현욱기자 jspo832

SK건설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교육센터에 급식소를 건립해 기부했다

중고 전공서적 잘나가네

반값 판매 '북장터' 인기 직거래 기반 수수료 없어

각 대학들이 지난 3일 일제히 개강했다. 많은 등록금이나 생활비도 문제지만 당장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가운데 전공 서적 구입 비용도 포함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명이 한 학기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책값은 15만~20만원 정도.

하지만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전공 도서라고 해도 모든 부분을 고등학교 때처럼 줄을 그어가며 공부를 하지 않게 된다.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깨끗한 전공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책장에 그대로 두거나 버리게 된다.

이런 가운데 알뜰 소비를 원하는 대학생들이 지난 학기에 사용했던 전공 서적을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중고 전공 서적 장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 '북장터'(사진)는 사회적 서비스를 표방하며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고 서적의 판매자와 구매자의 가교 역할만 한다.

직거래 기반의 거래 사이트로 책을 판매할 학생은 자신의 학교 카테고리에 책을 올려 등록하고, 책을 구매할 학생은 자신의 학교 카테고리에서 같은 학교 학생이 올린 책을 보고 연락해 직접 만나 매매를 하게 된다. 판매 서적의 가격은 대체로 정가의 50% 정도다.

처음에는 서울지역 5개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수요가 늘면서 지금은 150개 대학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곳엔 현재 1만6000권의 전공 서적이 등록돼 있다. 2년 동안 26만 명이 방문했다고 한다.

이 사이트를 기획한 최병욱씨는 "북장터는 ▲저렴하게 전공 서적을 살 수 있으며 ▲택배 거래가 아닌 학교에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고 간편하며 ▲때로는 족보나 노트 필기를 함께 받기도 한다"며 "학기 초에는 1주일에 1000~2000여 권이 등록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대학생들의 비용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일부 대학이나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장터 등의 사회적 서비스가 더 활성화 돼야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튜닝시장에도 여풍 분다

자동차 개조용품 여성 구매 크게 늘어

차량 튜닝용품들 /G마켓 제공

남성들의 로망이자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동차가 더 이상 그들만의 세계만은 아닌 것이라는 흥미로운 집계 결과가 나왔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 지면서 여성 드라이버들도 남성 못지않게 자동차 튜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이 지난달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최근 한 달 동안 자동차 용품의 남녀 구매 패턴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여성의 수요가 남성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차량용 튜닝용품 구매가 여성은 74% 증가한 데 비해 남성은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여성 드라이버에게 인기 있는 상품으로는 핸들 튜닝을 비롯해 계기판 튜닝·흡기 튜닝·몰딩 등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익스테리어용품의 경우도 여성은 56% 구매가 늘어났다. 하지만 남성은 11%에 그쳐 튜닝용품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익스테리어용품은 이용해 주유구 커버·와이퍼·자동번호판 등 쉽게 눈에 띄는 외관을 꾸밀 수 있어 멋을 중시하는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화기·삼각대·냉온장고·선풍기 등 차량용 안전·편의용품의 경우에도 남성 구매는 불과 1% 증가하는 데에 그친 반면, 여성은 15% 증가하며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자동차의 멋과 함께 안전과 편의에도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오토바이와 헬멧·보호장구 등 오토바이 안전용품 수요도 여성이 남성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여성은 37%, 남성은 21%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남성의 경우는 '쾌적한 환경'을 위한 구매가 높게 나타났다. 방향제·USB 공기청정기 등 차량용 공기청정용품의 경우 남성 구매량은 76% 증가했다. 하지만 여성은 41%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차량용 소형 진공청소기·셀프 세차키트 등의 세차용품은 남성 39%, 여성 14% 증가했다.

/정영일기자 prnxi@metroseoul.co.kr

알이 꽉 찬 암꽃게 맛보세요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은 4일 점포 중 지하1층 식품관에서 올해 첫 어획한 암꽃게를 활어 상태로 산지 직송해 선보였다. 최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보다 열흘 정도 일찍 출하됐다. 암꽃게는 알이 꽉 차 있어 수꽃게보다 고소하고 살이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판매 가격은 100g 5500원 내외. /현대백화점 제공

신혼부부 나무심기 참가 300쌍 모집

유한킴벌리가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전개 30주년을 맞아 기획한 '2014 신혼부부 나무심기'에 참가할 600명(300쌍)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행사는 오는 29일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총 8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당일 5년생 잣나무 1만2000그루를 심게 된다.

접수 대상은 결혼 2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이 확정된 예비 신혼부부 등이다. 참가자에겐 나무심기에 필요한 묘목, 식재도구 등 모든 준비물과 교통편, 기념품이 제공된다.

1984년 시작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지난 29년 동안 국·공유림 나무 심고 가꾸기, 학교 숲 만들기, 동북아 사막화 방지 활동, 도시 숲 조성 등 많은 활동들이 펼쳐졌다. 회사 측은 올해 5000만 그루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완성하고 향후 30년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지난해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신혼부부 나무심기'에 참가한 신혼부부가 잣나무 묘목을 정성스레 옮기고 있다. /유한킴벌리 제공

모르는 사람과 밥먹는 '소셜다이닝' 마케팅 활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6%를 1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다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0~30대 싱글족들 사이에 비용절감 소비를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사는 '프리미엄 싱글족'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먹을거리 놀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것이 특징. 또 나 홀로 패스트푸드점에서 끼니를 때우기보다는 낯선 사람들과 게릴라로 모여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는 '소셜다이닝'으로 식사문화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도 이들을 타깃으로 한 '소셜다이닝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

주류기업 배상면주가는 산사춘을 '월요식당 시즌3'(사진)에 협찬한다. 월요식당은 월요병에 지쳐 힐링푸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열리며 쿠킹 클래스가 접목된 형식으로 직접 만든 요리를 나눠 먹는 소셜다이닝이다.

피자헛은 지난 1월 피자헛 키친 론칭을 기념해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소셜다이닝을 벌여 호평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5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신메뉴를 맛보고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직장인 대상으로는 2014년 버킷리스트를 공유하는 주제로 모임을 개최하고, 대학생 모임에서는 솔로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가졌다. 피자헛 키친 콘셉을 자연스럽게 알리며 젊은층이 공감하기 쉬운 주제로 접근한 것이다.

tvN 1인 가구 드라마인 '식사를 합시다'는 매주 드라마 속에 나왔던 음식을 함께 먹으며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 소셜다이닝을 통해 드라마 홍보를 하고 있다.

인기리에 종영된 '응답하라 1994'는 94학번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했다. CJ푸드월드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한 추억이나 소셜다이닝을 하고 싶은 사연을 접수받아 당첨된 CJ푸드월드 레스토랑에서 추억을 나누는 소셜다이닝이었다. /정영일기자

‘서해바다열차’ 타고 섬여행 떠나요

공항철도 서울역~인천공항역~용유임시역 하루 왕복 22회 운행

기암 절경의 장봉도
해변 트레킹·4월 벚꽃터널 자랑

삼형제섬 신도·시도·모도
자전거 하이킹·구봉산 진달래 장연

왕산해변
저녁엔 낙조 아침엔 해무 '낭만'

이번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추석 연휴 제외)에 공항철도 서해바다열차가 운행됨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의 용유바다 여행이 더욱 편리해진다.

서해바다열차가 아니더라도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삼형제섬으로 불리는 신도·시도·모도 와 장봉도 등의 섬 여행을 언제든 즐길 수 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장봉도와 삼형제섬

산행과 해안 트레킹으로 유명한 장봉도(위 사진)와 세 섬이 다리로 연결돼 트레킹 코스가 일품인 신도·시도·모도는 당일 일상에서 탈출해 언제든 편리하게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섬 여행지다.

장봉도는 무의도와 더불어 수도권 최고의 섬 산행 코스로 유명하다. 기묘한 형상의 바위가 절경인 해안 트레킹과 해변 숲을 오가는 해안길 코스가 마련돼 있다. 또 4월 중순 벚꽃이 필 때면 말문고개 주변의 벚꽃터널이 장관을 이룬다.

삼형제섬으로 불리는 신도·시도·모도는 자전거 하이킹과 도보여행 코스가 일품이다. '슬픈연가' 등 드라마 촬영 세트장이 있고 전동 고가작이 방식인 '독살'과 염전, 해변 조각 공원 등 독특한 볼거리가 많다. 특히 봄이면 신도의 구봉산에 진달래와 벚꽃이 만개해 화려한 봄꽃 향연을 펼친다.

공항철도 운서역 앞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인 삼목선착장에는 매시 10분에 출발하는 배가 있어 신도를 거쳐 장봉도로 들어갈 수 있다.

◆서해바다열차로 즐기는 용유 8경

서해바다열차의 종착역인 용유임시역이 있는 용유도는 인천공항 건설로 영종도와 합쳐지기 전 용유 8경으로 유명했다. 인천공항 건설 등 환경 변화로 사라진 풍경도 있지만 아직도 옛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다.

해변을 따라 붉은 빛의 낙조가 유명한 왕산해변의 용유 제1경 '왕산 낙조'(오른쪽),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닮은 바위가 유명한 선녀바위 해변의 용유 제3경 '선녀바위 기암', 갯벌체험장이 있는 마시안해변의 용유 제4경 '명사십리', 포구 앞 일몰과 일출이 장관인 거잠포 용유 제5경 '잠진어화', 다양한 섬 여행을 즐기며 아침 해무를 만끽할 수 있는 무의도의 용유 제7경 '무의조무', 크고 작은 어선과 여객선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 소무의도의 용유 제8경 '팔미귀범' 등 서해바다열차를 이용하면 용유 8경 중 6경을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서해바다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해 인천공항역을 거쳐 용유임시역까지 연장 운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용유임시역 방면(하행) 11회, 서울역 방면(상행) 11회 등 하루 총 22회 운행된다.

하행열차는 오전 7시39분부터 오후 5시39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서울역을 출발하며 상행열차는 오전 9시27분부터 오후 7시27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용유임시역을 출발한다. /김학철기자

붉은 악마를 위한 카페베네 '초코악마빙수' 카페베네는 세 달 후 브라질에서 태극전사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국민적인 관심을 함께하고자 눈과 입이 함께 즐거운 스페셜 신메뉴를 출시했다. 새로 선보인 초코악마빙수(8400원)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12번째 태극전사를 연상케 하는 제품으로 진하고 풍부한 초콜릿 맛을 즐길 수 있는 시원하고 달콤한 빙수다. /카페베네 제공

매일유업 '바리스타' 2년째 컵커피 1위

매일유업의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바리스타(BARISTAR)'가 전년 대비 약 46%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대표 커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닐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RTD(Ready To Drink) 커피 시장 규모는 약 1조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성장했다. 칸타타가 3503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34.3%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컵(3171억원)과 NB캔(1641억원)이 각각 19.8%, 25.6% 성장하며 31.1%와 16.1%의 점유율로 RTD 커피 시장을 이끌었다.

이 가운데 3년 연속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바리스타는 브랜드별 점유율에서 지난해 8위에서 롯데칠성음료의 레쓰비와 칸타타, 코카콜라의 조지아 등에 이어 4위로 올라서며 컵커피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매일유업은 또 바리스타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1월 기준 시장점유율 42.4%로 지난해에 이어 컵커피 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태원기자

기업이 크는 힘 '소비자 커뮤니티'

홍보수단 넘어 제품 개발 기여
'락앤락 써포터즈' 활동 대표적

유통업계의 소비자 커뮤니티 마케팅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각 기업의 커뮤니티는 기업과 소비자의 양방향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제품 개발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간의 소통도 강화해 생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락앤락의 '락앤락 써포터즈'는 기업 운영 커뮤니티를 넘어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여성 커뮤니티로 손꼽힌다. 20대부터 60대까지 28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제안 활동을 통해 회사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제품의 개발 및 마케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회원들은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생활 속 노하우 등을 게시판에 올리고 이런 의견은 실제로 상품 개발에 적극 활용된다.

실제로 껍질을 까고 남은 양파를 보관할 수 있는 '양파케이스', 김밥 한 줄만 넣어서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가져갈 수 있는 김밥전용용기, 남은 두부를 마르지 않게 보관하고 부서지지 않게 꺼낼 수 있는 두부전용용기 등의 상품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다.

또 이 회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넘어서 오프라인 클래스를 운영한다는 점도 독특하다. 지난해에는 락앤락의 발효전문용기인 '숨쉬는 유리용기'를 활용해 전통주, 피클, 장아찌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숨쉬는 유리용기 클래스', 락앤락의 플라스틱 수납 브랜드 '인플리스'와 패브릭 수납 브랜드 '리빙박스' 등으로 생활 속 정리·정돈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수납의 품격 클래스' 등 다양한 클래스를 운영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일동 후디스도 예비 엄마들을 위한 커뮤니티 '임동맘' 운영을 통해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 엄마들끼리 관련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정혜현기자 hjung0408@metroseoul.co.kr

11번가 모바일 쇼핑 "데이터 공짜"

오픈마켓 최초 SKT 회원들에게 무상 제공 시행

SK플래닛 오픈마켓 11번가가 오픈마켓 최초로 모바일 쇼핑 시 소진되는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모바일쇼핑 데이터프리'(이하 '데이터프리')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 회원이라면 누구나 데이터 부담 없이 11번가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이 명실상부한 유통 메인 채널로 성장함에 따라 전 국민 모바일 쇼핑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을 통해 11번가에 방문하는 고객 수는 전년 대비 올해 1~2월 동안 80% 증가했다. 또 모바일11번가 1인당 방문 빈도와 체류 시간은 같은 기간 각각 15%, 20% 늘었다. 이런 가운데 11번가는 모바일 쇼핑 이용 시 갖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프리를 전격 시행키로 했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이터프리를 통해 소비자는 오바일 웹이나 앱 등 어떤 경로를 통해 11번가에 접속하든 데이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11번가뿐만 아니라 쇼킹딜·도서11번가·셀러오피스 등 모든 11번가 모바일 서비스에 정책이 도입된다.

11번가 박종인 모바일 그룹장은 "모바일 쇼핑이 생활화되면서 11번가의 방문 빈도와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고객들은 데이터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데이터프리를 추진했다"고 서비스 취지를 밝혔다.

또 11번가는 3월 한 달간 새봄맞이 집 단장 및 웨딩 준비를 하는 고객들을 위해 카드사 혜택을 진행한다. 신한·현대·삼성 등 10대 카드사에 한해 최대 11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마련했다. 또 신한·삼성 등 4대 카드 이용 시 품목별 최대 5%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월 11회). 판도는 물론 일시불·할부 등 거래 제한 없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영일기자 pame@metroseoul.co.kr

닭가슴살 온라인몰 '굽네몰' 굽네치킨 상품권 증정 행사

닭가슴살 온라인 쇼핑몰 굽네몰은 이달 말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굽네치킨 상품권을 증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굽네몰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굽네치킨 상품권 5000원을, 5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1만원 상품권을 준다.

굽네몰은 대표 메뉴인 훈제 닭가슴살, 수비드 닭가슴살 외에도 닭볶음밥, 군고구마, 훈제 오리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 중이다.

한편 굽네몰은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주)지엔푸드에서 만든 닭가슴살 온라인 쇼핑몰로 로드 FC, 지역 사회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지원기자

'견과류 품은' 영양바 매출 급증

편의점에서 견과류의 인기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양바(bar)와 매출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지난해와 올해 견과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013년 156.0%, 2014년 1~2월까지 67.9% 증가해 매년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견과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먹기 쉽고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는 영양바 제품도 덩달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견과류가 다양하게 포함된 영양바의 경우 올해 1월과 2월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568.7%나 신장했다.

편의점에서 견과류 자체보다 영양바가 더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편의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편의점 주 고객층인 20~30대 덕분이다. 회사 측은 견과뿐만 아니라 각종 곡물 견과까지 포함돼 고른 영양으로 갖춘 영양바가 체중 조절이나 식사 보조식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맛도 있어 젊은층이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분석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최근 견과가 몸에 좋다는 인식이 늘어지면서 견과가 포함된 상품까지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다"며 "견과류가 들어간 영양바·초콜릿·시리얼 등 상품 구색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욱기자

웅진플레이도시 '가족모델 오디션'

어린이 포함 3인 이상 다음달 20일까지 접수

종합 레저 스포츠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제3회 가족모델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웅진플레이도시 관계자는 "친근한 모델을 선정해 가족 친화적인 테마파크의 특징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선발된 가족 모델은 웅진플레이도시를 대표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고 전했다.

다음달 20일까지 어린이(4~13세)가 있는 3인 이상 가족이라면 웅진플레이도시 공식 홈페이지(www.playdoci.com)를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우수 가족 모델로 선발되는 가족 1팀에게는 웅진플레이도시를 대표하는 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상금 100만원, 워터파크&스파 연간이용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이 밖에 우수상·인기상 등이 마련돼 있다.

한편, 웅진플레이도시는 20일까지 정기 휴장에 들어가며 시설을 업그레이드해 21일 재개장한다.

/박지원기자

코레일관광개발-중국관광국 중화권 여행객 유치 간담회

코레일관광개발이 최근 중국국가관광국 서울지국과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범거림 중국국가관광국 서울지국장과 주신강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코레일관광개발 측과 여행상품 및 먹거리 개발을 약속했다.

이건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중화권 고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달 21일 중화·동남아권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황재용기자

캠퍼스 이벤트 응모하면 푸짐한 선물

메트로 홈페이지 응모하세요

세계 최초, 국내 최대 무료신문 메트로신문은 2014년 새 학기를 맞아 산뜻하고 신나는 대학 생활을 기원하면서 청춘들을 위한 다양한 경품을 걸고 캠퍼스 이벤트를 펼칩니다. 응모하신 분께는 푸짐한 대박 선물을 안겨 드립니다.

오는 3월 11일까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서 '올해 캠퍼스 생활 중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원하는 것 3가지'를 적어 보내시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모두 127명께 아래 선물을 드립니다.

메트로신문은 어바웃타운 배포 등을 통해 기존 지하철역 입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한편 더욱 질 높은 콘텐츠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더욱 많은 캠퍼스 정보를 갖고 대학생 여러분께 찾아가는 메트로신문이 되겠습니다.

당첨자는 3월 12일 개별 통보합니다.

신나는 대학 생활! 메트로가 응원합니다.

<선물>
▲그랜드 힐튼 서울 숙박+식사권(3월 20일까지 사용 가능) 1명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숙박권(6월 20일까지 사용 가능) 1명 ▲뮤지컬 삼총사 A석 초대교환권 20명(각 2매) ▲스무디킹 3만원 상품권 5명 ▲던킨도너츠 모바일 상품권 100명

변비약 아무거나 먹다 큰일

시판약 치료 원리 다양해 증상 맞춰 처방 안받으면 장폐색 대장암 발병 우려

현대인의 스트레스성 질환 중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성질환은 변비다.

변비에 걸렸을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 특히 자신이 복용하는 변비약이 자신의 증상에 맞는 치료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변비로 고통받고 있지만 올바른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드물기 때문이다.

변비 환자들이 복용하는 변비약은 일반적으로 ▲팽창성 하제 ▲삼투성 하제 ▲자극성 하제로 나뉜다.

팽창성 하제는 변의 부피를 부풀려 배변을 돕는 약제다. 식이섬유를 이용해 변의 부피를 크게 해 장벽에 자극을 주는 원리다. 이는 초기 변비 환자에게 적합하나 복부 팽만감과 잦은 가스 등의 불편함이 동반된다.

삼투성 하제는 대장 내의 수분 함량을 늘인 후 변을 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장이 협착 또는 폐쇄된 환자가 복용하면 대장폐색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변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극성 하제는 대장으로 바로 이동해 대장 근육신경총을 직접 자극해 배변을 유도한다. 빠른 효과가 가장 큰 장점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대장 내 수분 및 전해질 손실, 장 무력증 등이 생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성변비에 접근하는 치료제도 등장했다. 최근 출시된 레졸로와 같은 약물로 장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로토닌 4형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장의 수축·이완 운동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키는 치료제다.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심각한 변비는 장폐색, 대장암 등 2차 질환으로 이어져 반드시 올바른 진단과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제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 식약청(FDA)에서 일부 변비약으로 인한 사망 및 심각한 합병증에 대한 경고가 있어 변비약 복용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섭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쉬워진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간단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이나 장애금여 등을 지급한다.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4개월 이내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피해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후 부작용 원인 규명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보상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사가 부담한다.

/황재진기자

자궁경부암 백신·아토피 건강강좌 잇따라

대학병원들이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건강강좌를 준비했다.

먼저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이 5일 오후 병원 옴니버스홀에서 '여성 건강과 예방접종'을 주제로 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여성 건강과 관련된 예방접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대우 산부인과 교수) ▲임신과 예방접종(신재은 산부인과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중앙대병원도 환자 및 일반인을 위한 무료 건강강좌를 마련했다. 5일에는 '아토피피부염 이제 긁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12일에는 '삼지동증—뭘이 아플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주제의 건강강좌를 통해 질환의 원인과 진단, 치료법 등이 소개된다.

/황재용기자

걷지도 앉지도 못할 아픔

통증 심한 고관절 질환 탈출 위한 적절한 치료법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 하나인 고관절(엉덩이 관절)은 신체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걷기, 쪼그려앉기 등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만 손상을 입었다면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고관절 통증 및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고 통증도 엉덩이 뿐 아니라 사타구니, 무릎 등 여러 부위에 걸쳐 나타나 사람들은 고관절 통증을 허리디스크나 척추질환으로 오인해 잘못 치료받는 경우가 많다.

◆인공관절 최소 절개술 최근 관심

고관절은 둥그런 모양의 대퇴골두와 이 대퇴골두를 품는 비구로 구성된다. 대퇴골두가 비구에 올바르게 끼워져 있어야 관절이 움직이는데 이것이 잘못 맞춰지거나 손상을 입으면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고관절 질환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에는 운동이나 물리치료 등을 통해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효과가 없거나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일상생활이 힘든 말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인공관절 수술은 고관절을 인공적으로 제작된 관절로 대체하는 수술로 최근에는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 근육과 힘줄을 보존하는 '최소 절개술'이 관심을 받고 있다. 외회전근을 절개하지 않고 밀어 젖힌 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절개 부위가 8~10cm 정도로 줄어 통증과 흉터는 물론 환자의 수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이다.

◆수술 후 근력 강화 운동은 필수

이와 함께 수술 후에는 잘못된 자세로 인한 탈구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과 재활을 통해 근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관절 주변 특히 외회전근 및 외전근, 신전근 등의 근력운동이 필요하며 수술 일주일 이후부터는 체중 부하를 위한 균형운동도 병행해야 한다.

균형운동은 주로 재활 기구인 풀리(pully)와 납작한 형태의 에어쿠션인 토구(togu)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 운동은 환자가 걷는 모양을 교정하고 고관절이 체중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송상호 힘튼병원 원장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고관절 질환 역시 조기 치료가 중요하지만 환자들 대부분이 인공관절 수술이 요구되는 말기에 병원을 찾는다. 병원을 찾을 때는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의 경험과 의료 인프라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수술은 가급적 전문병원에서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이선균처럼 멋진 목소리 "뮤코팩트로 가래 잡아요" 한국베링거인겔하임 가래 기침 치료제 뮤코팩트의 광고모델 이선균씨가 최근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뮤코팩트 이선균 팬톡 캣체의 건강한 프로포즈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선균씨는 팬들과 함께 가래 및 기침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알리기 위한 OX퀴즈를 풀며 건강한 환절기 나기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제공

집중력 떨어진 우리 아이 혹시 일자목?

자녀 척추 이렇게 지키세요

요즘 아이들은 외부 활동보다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외부 활동을 어렵게 하는 미세먼지와 컴퓨터·스마트폰 게임 때문인데 실내 활동은 비만을 초래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져와 아이들의 허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욱이 어린 시절의 습관이나 자세는 쉽게 고쳐지지 않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스마트폰을 보면서 집중하다 보면 목과 어깨·허리에 무리가 가는데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목뼈와 척추의 변형이 생길 수 있다.

또 잘못된 자세로 컴퓨터를 오래 사용해도 척추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일자목으로 인해 뒷목 근육이 뭉치는 현상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두통이나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 조기 발견 및 자세 교정이 필요하다.

만약 아이가 컴퓨터를 할 때 목을 쭉 빼고 있다면 이미 목뼈의 변형이 진행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귀와 일직선이 되도록 턱을 당기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하고 평소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책을 읽을 때는 엎드려 읽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 바닥이나 침대에 엎드려 책을 읽다 보면 허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척추에 피로가 쌓이기 때문이다.

성현석 구로예스병원 원장은 "큰 통증 없이 목뼈나 척추의 변형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의 관심이 특별히 요구된다. 평소 의자 깊숙이 엉덩이를 넣어 앉고 허리와 등을 등받이에 기대 바르게 앉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3무 3유' 광학기기 전문기업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 올림푸스한국

야근과 휴일 연장 근무 없고
칼퇴근·휴무 주간 연차 보장
급여 외국계 회사 최고수준

광학기기 전문기업인 올림푸스한국은 3무(無) 3유(有) 원칙으로 유명하다.

불필요한 야근, 휴일 근무, 퇴근 후 업무 처리가 없는 대신 정시 퇴근, 창립 기념 휴무주간, 개인 연차 100% 사용을 보장받는다. 일상화된 주말 초과 근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긴 근무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꿈 같은 근무조건이다.

덕분에 330여 명의 올림푸스한국 직원들은 온-오프(on-off)라인 구분이 확실한 삶을 누리고 있다. 업무 관련 e메일을 확인하느라 퇴근 후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를 확인해야 하는 수고를 겪지 않아도 된다.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인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회사 업무에 방해받지 않고 자기 계발이나 휴식 등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올림푸스한국 사옥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는 매일 아침 뷔페식 무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특히 상사의 눈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휴가 사용도 자유롭다. 회사에서 100% 소진을 목표로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덕분이다. 게다가 10월 1일 창립기념일이 포함된 일주일 전체를 휴무주간으로 정해 전 직원이 재충전 기회를 갖는다. 연차와 별도로 5일간의 유급휴가가 더 주어지는 셈이다.

홍승갑 올림푸스한국 인재전략실장은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눈치 안 보고 정시 퇴근하기', '눈치 안 보고 연차 쓰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2월말 현재 직원들의 연차 소진율이 98%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3월 결산)가 끝나는 이달 말이면 100%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직장인들의 지난해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이 46.4%(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수준이다.

◆뷔페식 아침도 무료 제공

올림푸스한국의 자랑거리는 이것만이 아니다. 매일 아침 서울 강남 삼성동에 위치한 사옥 1층에는 뷔페식 무료 식사가 차려진다. 덕분에 싱글인 젊은 직원들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사옥 지하에 위치한 올림푸스홀에서 개최되는 모든 문화 공연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동반자까지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예프게니 키신, 이 무지치 실내악단 등 유명 뮤지션들의 공연도 자주 열린다. 게다가 어구, 생활체육, 어학 등 사내 동호회도 적극 지원해 직원들의 직장 생활에 대한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급여 수준도 외국계 기업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대졸 초임 연봉이 3200만원으로 세 번의 특별상여금과 차별 성과급, 통신 유류비 지원 등을 더하면 실수령액은 4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올림푸스한국이 이처럼 직원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가꿀 수 있었던 것은 2012년 7월 이나도미 가즈히코 사장이 취임하면서 '일하기 좋은 회사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 덕분이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라 세계적 인적자원관리(HR) 업체로부터 컨설팅까지 받았다.

이 같은 노력이 직원들의 애사심을 끌어올려 2009년 25%에 달하던 퇴직률이 지난해 8.7%로 급감했다.

◆올해 60여 명 채용 예정

올림푸스한국은 올해도 일하기 좋은 회사 만들기에 동참할 신입 경력 사원 60여 명을 수시 채용을 통해 뽑을 계획이다. 채용 시기는 4~9월에 집중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www.olympus.co.kr/Employ/Ready)를 참조하면 된다. /kmee@metroseoul.co.kr

구직자 대기업 쏠림 심화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도 구직자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2013년 하반기 신입 채용 기업 270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취업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이 평균 8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중견기업은 38대 1, 중소기업은 21대 1로 나타났다.

대기업 입사 경쟁률이 중소기업보다 4배나 높았다는 이야기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주요 기업의 공채 경쟁률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그룹은 5500명을 채용하는 데 무려 10만여 명이 지원했으며 현대자동차도 100대 1의 경쟁률을 훌쩍 넘겼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훨씬 많은 합격 예정자를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에서는 대기업이 채용 예정 인원 대비 평균 7배수를 선발했고 중견기업은 5배수, 중소기업은 4배수를 선발했다고 답했다. 면접을 두 차례 이상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1차 면접 합격자는 대기업이 평균 5배수, 중견 및 중소기업은 각각 3배수를 뽑은 것으로 집계됐다.

채용 전형 단계는 대기업이 '4단계'(66.7%), 중견기업은 '3단계'(58.8%), 중소기업은 '2단계'(53.7%)로 진행했다는 응답이 각각 가장 많았다. /이국명 기자

이런 인재를 원한다

열정도 좋지만 솔직하게 어필하라

"구직활동은 결혼과정과 유사합니다. 열정만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공수표를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홍승갑(사진) 올림푸스한국 인재전략실장은 단순히 열정만 내세우기보다는 자신과 회사에 솔직하게 가능성을 선보여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능성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신을 먼저 알고 배우자를 선택하듯이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듯이 자신의 장단점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결혼 상대방에게 구애하듯 회사에도 기업에 대한 이해, 지원 분야에 대한 지식 등을 통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 회계 파트에 지원한 한 구직자의 경우 올림푸스한국의 1년간 공시 자료를 분석해 면접 때 발표했다. 단순히 열정만 강조하는 구직자들 사이에서 확실히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도덕성도 본다고 들었다

▶▶회사의 영속성을 위해 도덕성 체크는 필수다. 예를 들어 회사에는 노출되지만 부도덕한 상사의 행위를 봤을 때 어떻게 할지를 면접에서 물어본다. 올림푸스한국은 이사상보다는 준법정신을 더 중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외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

▶▶글로벌 회사이니 보니 영어가 회사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회화 능력은 필수다. 단순히 토익 스피킹 등의 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면접을 통해 업무 진행이 가능한지를 체크한다. 영어가 부족한 경우 일본어 회화 능력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국명 기자

"실무형 인턴십 도전하세요"

KT는 실무형 인재 양성 인턴십 프로그램인 '올레 모바일 퓨처리스트' 12기를 28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올레 모바일 퓨처리스트 프로그램은 프로슈머 인턴십으로, 참가자가 아이디어 제시, 출시 전 서비스 검증 활동 등의 실무를 경험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원 자격은 교육부 인가 전국 4년제 대학의 3~6학기 재학생과 휴학생이고, 지원 희망자는 올레 모바일 퓨처리스트 트레이닝스쿨 사이트에서 온라인 과정을 이수한 후 2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올레 모바일 퓨처리스트 12기는 최대 200명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5월부터 총 10개월간 정해진 주제의 미션 수행, 개인별 리서치•태스크포스(TF) 등에 참여한다.

이동통신 요금 지원, 최신 단말기 지급, 우수팀 해외 연수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서승희 기자 sh@

장윤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스피치트레이닝 ⑬

설득 더 잘하려면 자신의 품격 높여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2500여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창한 수사학은 현대 스피치에도 널리 통용되는 이론이다. 인류 최고 지성의 고전이라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고대 그리스 법정 논쟁과 토론 문화에서 수사학이 탄생했듯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설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설득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확실한 방법은 주장을 근거로 입증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제와 관련된 명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증명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논지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뒷받침 설명이 부족하면 청중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바제 설득당하기를 강요받는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때로는 스피치 내용보다 발표자 신뢰가 설득을 좌우한다.

말하는 사람의 지위와 영향력이 높을수록 설득의 효과는 높아진다.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지십시오!'란 명제에는 누구나 동의하더라도 설득력은 대학생이 말할 때와 유명 멘토가 말할 때의 차이가 크다. 직장 내 의사 결정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의 의견에 따르게 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남을 비판하려면 자신은 트집 잡힐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난하는 자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자보다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갖고 있어야 논증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내용만큼 비판하는 당사자의 품격도 설득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본인은 돌아보지 않고 타인 헐뜯기에 바쁜 사람들이 많은데 참고해야 한다.

다음 회에서는 강의 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unique@

냉전시대 소통의 대명사 '케네디'

'핵 비확산 조약'의 발판된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등 일촉즉발의 정세에서 빛난 설득의 리더십 사례 재조명

존 F 케네디의 위대한 협상
제프리 D 삭스/21세기북스

"나는 전쟁의 새로운 국면 때문에 평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비교적 충격에 강한 대규모 핵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전력을 사용하기 전에는 절대 항복하지 않는 시대에 전면전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단 한 기의 핵무기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의 모든 공군 비행기가 퍼부은 폭발력보다 거의 열 배나 많은 위력을 갖고 있는 시대에 전면전은 무의미합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1963년 6월 10일 아메리칸대학 졸업식에서 말한 축사이자 '평화연설'의 일부다. 케네디 대통령의 이 평화연설 이후 미국과 소련은 같은 해 8월 5일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PNTBT)'을 체결하게 된다.

'존 F 케네디의 위대한 협상'의 저자인 제프리 D 삭스는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5년 뒤 '핵 비확산 조약(NPT)'을 체결하는 발판이 됐다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외교 업적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 평화를 만드는 과정, 서로 기록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모두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책은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케네디를 통해 알려준다. 쿠바 미사일 위기 시대인 1962년 10월부터 1963년 9월까지 케네디가 보여준 공산 진영과의 대화 노력, 미국 내 강경파를 설득하는 과정, 니키타 흐루쇼프 전 소련 서기장과 주고받은 서신 등을 통해 당시 미국과 소련의 대치 상황을 세세히 밝힌다. 일촉즉발의 시기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 등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이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특별 자문관인 저자는 뉴욕타임스, 타임 등의 언론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꼽은 저명한 학자다. 저서로는 '문명의 대가', '커먼 웰스', '빈곤의 종말' 등이 있다.

/김희설기자 kimjh654@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 해녀, 시수를 꿈꾸다

제주는 해녀의, 밭내고 그녀들의 삶이 새겨진 주름이 제주의 시간이다. 살아있는 역사다. 그러니 꼭 도장을 찍듯 점점이 떨어지는 그녀들의 발자국은 제주를 빚은 설문대할망의 눈물이고 땀방울이다. —다른 제주에 가다(박상준/스타일북스) 중— /황재용기자 hsoul38@

새로 나온 책

인문

로스트 제너레이션 심리학

구마시로 도루/지플러스 올리브니 올

고도 성장기를 누리며 자랐으니 만성 불황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 즉 엄시 진행과 취업 빙하기를 경험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전반에 태어난 '로스트 제너레이션'들의 심리와 기질의 이야기다. 특히 현역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분석한 이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소설

개포동 김갑수씨의 사정

허지웅/아우름

'글 쓰는 허지웅'이 5년 만에 발표하는 신작이자 그가 처음으로 쓴 소설. 소심의 연애담. 허지웅 특유의 재기발랄한 문장들로 한 개인의 연애담과 섹스사를 넘어 고시원, 반지하, 전셋방, 대학가, 술집 등의 도시 공간을 통해 보통 사람들의 생활상과 연애사를 짚어낸다.

에세이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유인경/위즈덤하우스

오늘은 서툴러도 내일은 당당하게 일하고 싶은 모든 딸들에게 힘이 되는 책이다. 거창한 직장 생활 성공법을 가르쳐준다기보다 직장 생활 초기 가장 필요하지만 상사에게 물어보기에는 어렵고 동료들에게 물어보기에는 애매한 사소한 태도에 대한 것들을 담았다.

원 챈스

폴 포츠/문학세계사

어눌한 말투의 초라한 외모의 휴대전화 판매원에서 세계적인 가수가 된 보통 사람 폴 포츠의 가슴 뭉클한 삶의 기록을 담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자신이 언제나 진정으로 원했던 가수로서의 길을 걸어온 그의 감동적인 여정을 만나보자.

자기계발

승풍파랑

가오쉬안/북로그컴퍼니

자기계발 마스터로 불리는 가오쉬안이 긍정, 도전, 열정, 목표, 집중, 시간 관리, 실상, 변화 등의 8가지 키워드를 통해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난관 속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심리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비결, 잠재 능력을 자극해서 최대한 발휘하는 법을 귀띔한다.

행복을 긁어모으는 방법

화제의 책

행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소냐 니 뤼이드박/북로드

지난해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은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나라의 국민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우리 사회에서 행복에 관한 책이 쏟아져나오고 국민 행복, 행복도시, 행복주택 등 행복이란 단어가 넘쳐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행복학을 연구하는 저자 조르디 쿠에드박은 행복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삶의 영역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저자는 돈, 가족, 친구, 직업, 건강, 정치적 성향 등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다양한 실험과 이론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흥미롭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까운 현대식 아파트보다는 직장에서 조금 멀더라도 전원의 저택에서 살고 싶어하는데 과연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커플 사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면 둘 사이는 어떻게 될까? 왜 40대는 불행할까? 우리의 통념을 깨뜨리는 여러 행복 실험의 결과들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이를 기초로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들도 제시한다. 삶의 소소한 기쁨을 음미하고 나만을 위한 지출이 아닌 사회적인 지출을 하고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등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정혜인기자

독자들 '유럽 여행' 삼매경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 등 에세이 판매 강세

올해 연휴가 대폭 늘어나면서 얼리버드 이용객 외 조기 예약이 활발한 가운데 '여행 에세이'들이 온라인 서점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터파크도서에 따르면 지난달 출간된 문학평론가 정여울의 여행에세이 '내가 사랑한 유럽 톱 10'이 누적 판매량 4500권을 넘기며 2월 월간 랭킹 4위에 올랐다. 스칸디나비아 겨울왕국 관련 도서와 드라마셀러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판매량이라는 것이다.

저자 정여울도 인터파크도서 북데이터베이스(DB) 주간 작가 랭킹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책은 33만 명의 여행자가 선정한 유럽의 테마별 베스트 여행지 100곳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저자 정여울 특유의 담백하고 따스한 에세이와 감성적인 사진이 어우러져 여러 유럽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꽃보다 할배'와 '꽃보다 누나' 등 유럽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의 인기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내가 사랑한 유럽 톱 10' 최근 판매량 역시 이 같은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여행 조기 예약 트렌드와 함께 인기 지역 관련 도서들이 주목받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 가고 싶은 여행지로 유럽(36.0%)과 크로아티아(34.7%)가 1·2위에 오른 가운데 여행 에세이 '크로아티아 렌소디'가 출간 한 달여 만에 판매 랭킹 상위에 올랐으며 기타 여행 관련 서적의 판매도 꾸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경인기자 pcms@

"스포트라이트 신경 안써요"

'우아한 거짓말'로 21년만에 영화 복귀 김희애

화장품 CF 밖으로 나온 배우 김희애(47)의 모습은 인간적이고 소탈했다. 개그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는 말마따나 입을 열 때마다 솔직하고 재치가 넘쳐 웃음을 자아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인 tvN '꽃보다 누나'로 화제를 모으기도 한 그는 이달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동시에 찾아 대중과의 거리를 더욱 좁힌다. 21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 '우아한 거짓말'(13일 개봉)과 파격적인 멜로물 JTBC '밀회'(17일 첫 방송)를 선보인다.

-'꽃보다 누나'에서 '급식 소녀'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처음엔 여행만 다녀왔을 뿐인데 그런 캐릭터로 포장돼서 충격은 받았다. 음식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만 편집돼 우려가 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그 일이 내게 터닝포인트가 됐다. 이래서 나영석 PD가 천재 소리를 듣는구나 싶더라. 지금은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다.

-극중에서는 막내딸을 잃고도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엄마를 연기했다.

출연 전 김려령 작가의 원작 소설을 먼저 봤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라 강한 작품을 못 보는데 이건 현실감 있게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극중 상황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인생의 순리보다 살아가면서 성숙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라는 점이 와 닿았다.

-드라마에서는 이번 '밀회'를 포함해 주로 파격적인 멜로를 선보였다.

원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에 출연한 이후로 온갖 잡드라마 역은 내게 다 들어오더라. 그래서 난 배역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작품을 선택한다. '밀회'도 마찬가지다.

-'우아한 거짓말'과 '밀회'에서 모두 열아홉 살 연하의 유아인과 호흡을 맞췄다.

'완득이'에서 연기한 것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 어딘가 글 쓴 것도 봤는데 똑똑하기까지 하더라. 이번 영화에서는 얼진 총각 역을 맡아 제대로 망가지고 드라마에서는 매력적인 천재 피아니스트로 나와 성숙된 모습을 보여준다. 잘생기고 동안이고 섹시하다. 특히 드라마에서 배역에 완전히 빠져 숨소리도 내지 않고 연기하는 것을 보고 선배인 나도 자극받았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화장품 CF 모델로 사랑받았다.

솔직히 대중이 생각하는 것처럼 뷰티에 예민하지 않다. 화장품 광고를 찍을 때마다 이번에 잘릴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을 항상 한다. 늘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지만 커버할 게 많은 스태프들에게 늘 미안하다. 내가 스물몇 살로 보이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

막내딸 잃은 엄마의 슬픔 다뤄
19세차 유아인 연기 자극받아
작품 선택시 배역보다는 사람
드라마 '밀회'에선 파격 멜로
저는 뷰티 예민녀 아니랍니다

-배우 김희애와 엄마 김희애 중 어떤 호칭으로 불러주는 게 더 좋은가.

어떤 게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은 내가 행사에서 예쁜 옷을 입고 샴페인 들면 매일 그런 줄 아는데 실은 5분이 끝이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화장품 CF 찍어야 하는데도 설거지를 하는 며느리고 아내고 엄마다. 어떤 때는 '나 김희애인데 라며 울컥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배우든 엄마든 내가 아니라 그저 역할을 한 것일 뿐이기에 스포트라이트에 의미를 두지도 울컥하면서 오래 마음 상해하지도 않는다.

-두 아들이 엄마의 대를 이어 연기에 재능이 있어 보이나.

고등학교 1학년인 첫째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 드라마 수업이 있다며 내게 우스갯소리로 선배님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배우라는 게 행복한 직업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기에 취미로 했으면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난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다독여주는 편이다.

/차현정기자 hjk0427@metroseoul.co.kr
사진/이스트룸 제공·디자인/이은지

"남편 이찬진 검색어 1위… 본인은 모른 척"

배우 김희애가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 언급한 후 검색어 1위에 오른 남편 이찬진의 반응을 전했다.

4일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만난 그는 "아침에 일어나 남편 이름이 검색어에 오른 것을 보고 마음 한편이 조마조마했다. 나도 사회생활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해봐서 아는데 부인이 밖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싫을 것 같다"면서 "그런데 모른 척해주더라. 물론 무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느 날 내가 우연히 남편의 트위터를 들어갔는데 위축된다고 보지 말라고 하더라. 예전 부부는 드라마 대사도 함께 맞춘다고 하는데 나 역시 민망해서 모니터조차 혼자 한다"며 "그래서 아이들 아빠는 내 드라마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순박할 정도로 거짓말을 못 하는 사람이라 그랬을 것"이라고 결혼 19년차에도 여전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비결을 이야기했다.

김희애는 한글과컴퓨터를 창립한 IT 기업인 이찬진 대표와 1996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드림위즈와 터치커넥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차현정기자

신화 데뷔 16주년 콘서트

그룹 신화(사진)가 16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신화는 오는 22~23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데뷔 16주년 콘서트 '하이'를 열고 그동안 한 번도 선보이지 않았던 11집 수록곡 '마네킨'과 10집 수록곡 '무브 위드 미' 스페셜 무대를 펼친다.

신화컴퍼니는 "'마네킨'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사운드가 포인트인 어쿠스틱 댄스곡으로 팬들이 평소 무대로 만나보고 싶어했던 곡"이라며 "에릭이 직접 작사한 '무브 위드 미' 무대에서는 섹시한 연출이 돋보이는 깜짝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화의 16주년 기념 콘서트는 예매 오픈과 동시에 서버가 다운되며 2만7000석 전석이 매진돼 여전한 파워를 과시했다. /황성운기자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 소녀시대

포브스코리아 선정 '한국 셀러브리티' 1위

소녀시대(사진)가 경제 매거진 포브스코리아가 발표한 '2014 한국 셀러브리티 40'에서 1위에 올랐다.

소녀시대는 포브스코리아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셀러브리티 40명을 선정해 발표한 '2014 한국 셀러브리티 40'에서 각 분야의 쟁쟁한 스타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셀러브리티 40'은 포브스코리아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한 인물 검색 순위를 바탕으로 영화·드라마·예능·가요·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한 100여 명의 후보군을 선정해 종합 순위를 매긴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매출, 미디어 노출 빈도, 방송 활동, 전문성 등 4개 부문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특히 소녀시대는 이번 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4개 부문(매출·미디어·전문성·방송) 모두 10위 안에 진입해 눈길을 끌었다. 2011년과 2012년 발표된 순위에서도 종합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포브스코리아가 발표를 시작한 2009년 이래 올해까지 유일하게 6년 연속 톱 5에 이름을 올렸다.

소녀시대는 지난해 정규앨범 '아이 갓 어 보이'로 각종 음악차트 1위를 석권함은 물론 미국 유튜브 뮤직 어워드에서 메인 상인 '올해의 뮤직비디오'를 수상했다. 또 미국 타임지가 발표한 '2013 올해의 노래 톱 10'에 아시아 가수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글로벌한 성과를 이루며 맹활약을 펼친 바 있다.

소녀시대는 최근 새 미니앨범 '미스터미스터'를 공개해 빌보드, 퓨즈TV, 캡더스트, MTV, 아이돌레이터 등 미국 음악 전문매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김그림 '언제나 봄날' 발표 풋풋하고 달콤한 시즌송

가수 김그림(사진)이 달콤한 봄 시즌송 '언제나 봄날'을 발표했다.

김그림은 4일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앨범 '언제나 봄날'을 공개했다. 김그림 작사, 조영수 작곡의 '언제나 봄날'은 컨템포러리 컨트리 음악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발라드 곡이다.

아날로그 감성이 담긴 '언제나 봄날'은 풋풋한 무공해 매력의 멜로디와 노랫말, 어쿠스틱한 편곡까지 더해진 힐링 음악이다. '너 밖엔 없더라' '너에게' '눈물방울' 등으로 담담하고 성숙한 보컬을 선보였던 김그림은 '언제나 봄날'에서는 러블리한 모습으로 180도 변신한다.

김그림의 '언제나 봄날'이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 로이킴의 '봄봄봄'을 잇는 '봄 캐럴'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황성운기자

지상파 예능 새판짜기

신개념 토크쇼 '나는 남자다' 유재석 합류
'정글의 법칙' 후속으로 '도시의 법칙' 준비
강호동의 '펀글럽 대결' 다음달 방송 예정

지상파 방송의 봄 개편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예능 프로그램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신개념 토크쇼와 새로운 리얼 예능 프로그램 등 볼거리가 풍성해질 전망이다.

KBS는 '국민 MC' 유재석을 메인으로 내세워 신개념 토크쇼 '나는 남자다'를 선보인다. '나는 남자다'는 토크쇼 형식의 신성 파일럿으로 남자들만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제작진은 온라인 게시판에 "남자의, 남자에 의한, 남자를 위한 방송"이라고 소개하며 남중-남고-공대 출신의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방청객으로 진행된다고 밝혀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유재석과 MBC '무한도전', KBS2 '해피투게더'로 인연을 맺은 주기쁨 작가가 프로그램을 맡아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SBS는 '정글의 법칙'에 이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도시의 법칙'을 준비 중이다. '도시의 법칙'은 '정글의 법칙'을 탄생시킨 이지원 PD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이다. 출연진들이 함께 도시를 찾아다니며 다양한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는다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와 tvN 'SNL코리아' 등을 통해 예능 감각을 뽐내고 있는 정경호가 출연 제의를 받고 논의 중이다.

강호동은 MBC에서 '펀글럽 대결' 포맷의 예능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스타가 자신의 팬클럽과 함께 출연해 또 다른 스타의 팬클럽과 라이벌전을 펼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방송 예정이며 제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황성운기자 jjang@

유재석 정경호 강호동

"'별그대' 연기인생 전환점"

박해진 극중 이휘경 열연··· "제 나이 찾고 트렌디 이미지 변신 계기"

배우 박해진(사진)이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에 대해 "제 나이를 찾아준 작품이다"고 종방 소감을 전했다.

박해진은 지난 3일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별그대'가 연기 인생에 있어 "제 나이를 찾아준 작품이다. 그동안 나이보다 성숙한 느낌의 연기를 주로 했다"며 "'별그대'를 통해 어린 친구들이 먼저 알아주는 걸 보고 인기를 체감하고 있다. 트렌디한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작품이다"고 밝혔다.

앞서 박해진은 이휘경 대신 소시오패스인 이재경(신성록)으로 캐스팅됐지만 당시 이휘경을 연기하기로 했던 배우가 갑작스럽게 하차하면서 배역을 바꾸게 됐다.

이에 그는 "재경 역에 대한 분석은 끝난 상태였다. 하지만 신성록 선배가 잘해줘서 기쁘다"며 "선배와는 다른 모습의 재경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점이 아쉬운 뿐이다"고 배역 교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함께 연기한 배우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박해진은 김수현에 대해 "치밀하게 연기하는 모습에 내공이 대단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전지현에 대해선 "천송이 그 자체다. 성형미인인 보다가 선팩을 보니 선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편안했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박해진은 현재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가제)으로 첫 의학드라마 도전을 준비 중이다. 또 중국에선 '박해진 브랜드'를 론칭해 디자이너로 데뷔하는 등 제2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2014년의 첫 단추를 잘 낀 것 같다. 올해는 쉼 없이 활동하니까 지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향후 활동 계획과 다짐을 밝혔다.

/김효정기자 jemh@metroseoul.co.kr

조윤희, 김우빈과 호흡

'기술자들' 여주인공 캐스팅··· 1년6개월만에 스크린 복귀

최근 킹콩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튼 조윤희(사진)가 영화 '기술자들'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돼 김우빈·이현우와 호흡을 맞춘다.

항구를 배경으로 범죄 기술자들의 활약과 에피소드를 담은 케이퍼 무비로, 조윤희는 사건의 계기가 되는 중요한 인물이자 갤러리에서 일하는 직원한 은비 역을 맡았다.

MBC '스캔들', '태우 증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과 tvN '나인' 등 최근 안방극장에서 주로 활약을 펼치다 이번 영화로 '공모자들' 이후 1년6개월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하게 됐다.

'공모자들'로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한 김홍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김우빈·이현우를 비롯해 고창석·조달환·김영철·신구·임주환 등이 출연한다.

조윤희는 "김홍선 감독님과 '공모자들'에 이어 다시 한 번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고 멋지고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게 돼 기대가 크다. 홍일점으로 합류하게 된 만큼 최선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영화는 이달 초 크랭크인 예정이다.

/탁진현기자

'롤러코스터' 해외영화제 초청 잇따라

참신·기발 돋보이는 하정우 감독 데뷔작

하정우의 감독 데뷔작 '롤러코스터'가 해외 영화제에서 잇따라 러브콜을 받고 있다.

4일 CJ E&M에 따르면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됐던 이 영화는 제12회 '스피릿 오브 파이어' 데뷔작국제영화제와 제9회 오사카아시안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지난달 28일 개막한 '스피릿 오브 파이어' 데뷔작국제영화제는 매년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티만시스크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데뷔 감독들의 영화를 전문으로 상영하는 영화제다. '롤러코스터'는 기존에 봐온 영화들과 달리 통통 튀는 기발함과 참신함을 가졌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아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오사카아시안영화제는 다양한 아시아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제로 7일 개막한다. 김형현 감독의 '써니', 임상수 감독의 '하녀' 등이 초청된 바 있으며, 올해는 '롤러코스터'와 조은성 감독의 '선샤인 러브'가 국제경쟁 부문에 오른다.

이 영화제의 프로그래머 테루오카 소조는 "하정우는 영화감독으로서 뛰어난 연출력을 보여줬다. 잘 구축된 시나리오와 살아 있는 대사, 독특한 캐릭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롤러코스터'는 제15회 하와이국제영화제 스프링 쇼케이스에서도 공식 초청을 받아 상영될 예정이다. 이 영화제는 다음달 4~10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다.

/유순호기자 lmb342?@

'…스파이더맨2' 1주일 빨리 만난다

개봉일 내달 24일로 당겨

전 세계를 열광시킨 할리우드 히어로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속편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사진)가 예정보다 일주일 빨리 한국 관객과 만난다.

다음달 30일 개봉 예정이었던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관객들이 보여준 열렬한 성원에 부응하고자 다음달 24일로 개봉일을 변경했다. 앞서 1차 예고편, 슈퍼볼 특별 영상 등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내용이 공개될 때마다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개봉일 변경과 함께 메인 포스터도 공개됐다. 강렬하게 내리치는 번개 사이로 전편보다 한층 날렵해진 스파이더맨(앤드류 가필드)의 모습과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라는 카피는 이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이 히어로로서의 진면모를 발휘할 것이란 기대를 더한다.

/탁진현기자

돌아온 박주영 그리스전 골을 부탁해!

내일 원정 평가전 …골키퍼 주전경쟁 관심

홍명보(45)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6일 오전 2시 그리스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른다.

그리스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2위로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맞붙는 러시아(22위)와 벨기에(11위)를 염두에 두고 치르는 모의고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불어 홍 감독은 그리스전 결과를 토대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설 23명 최종 엔트리의 윤곽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다.

특히 경기력 논란 속에 발탁된 박주영(29·왓퍼드 FC)이 13개월 만에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상황에서 확실한 골로 자신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을지가 최고의 관전 포인트가 됐다.

홍명보호는 지난해 7월 동아시안컵을 시작으로 총 13경기를 치르면서 4승3무6패를 거뒀다. 득점(13골)보다 실점(17실점)이 많았고 무실점으로 이긴 경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최근 두 차례 평가전에서는 득점 없이 무려 6골을 내주며 2연패에 빠졌다.

이번 평가전은 월드컵 본선에 나설 최종 엔트리 확정과 함께 연패의 사슬에서 벗어날 기회란 점에서 중요하다.

이기에 골 결정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홍명보호에 합류한 박주영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박주영은 꿈의 무대인 월드컵에도 두 차례(2006·2010년)나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고, 2012년 런던올림픽에는 와일드카드로 합류해 동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그러나 2011~2012시즌 아스널 FC에 입단한 이후부터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하락세에 빠졌다.

따라서 이번 평가전은 박주영을 시험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예정이다. 단 한 경기의 시험에서 박주영이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면 본선 무대를 밟는 것은 요원해진다. 손흥민(22·레버쿠젠)과 이청용(26·볼턴)을 중심으로 좌우 날개를 구성한다고 예상했을 때 박주영이 최전방에서 원톱으로 얼마나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하지만 박주영의 풍부한 경기 경험만큼은 무시할 수 없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그리스와의 평가전을 이틀 앞둔 3일(현지시간) 오후 그리스 아테네 카라이스카키스 스타디움에서 선수들을 모아 훈련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골키퍼 주전 경쟁이다. 홍 감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주전 골키퍼 자리에 대한 확답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팀 골키퍼 경쟁은 2006년과 2010년 월드컵에서 활약한 정성룡(29·수원)이 지난해 막판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번 골키퍼였던 김승규(24·울산)가 치고 올라오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김승규는 지난 1월 해외 전지훈련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4골을 허용하며 주춤하는 모양새다.

김승규의 단점은 A매치 경험(5경기)이 적어 큰 경기 때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수비진의 위치를 잡아주는 능력이 뛰어난 정성룡(A매치 63경기)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홍 감독 역시 패기와 연륜 사이에서 주전 골키퍼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누구에게 휘슬이 울릴지 관심거리다.

/김성현기자 ysw@metroseoul.co.kr

김연아 "어이 없지만 결과 미련 없어"

소치 은메달 소회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소치올림픽을 마친 뒤 첫 공식 행사에 나섰다.

김연아는 4일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트리움센터 특설 무대에서 팬미팅을 열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토크쇼 형식의 행사에서 김연아는 선수 생활의 마지막 무대이기도 한 소치올림픽을 마친 소회와 뒷이야기 등을 털어놓았다.

소치올림픽에서 클린 연기를 펼치고도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에게 밀려 은메달에 그치면서 세계적으로 판정 논란이 벌어진 터라 이날 자리에서도 판정이 화제가 됐다.

김연아는 "어이는 없었지만 나는 끝났다는 것이 좋았다"면서 "결과를 되새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연아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트리움 광장에서 열린 E1과 함께 하는 귀국 환영회에서 MC 전현무와 토크쇼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대회 전에는 금메달이 간절하지 않다고 늘 말하면서도 '나도 사람이기에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아쉽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나니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 결과에 미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기를 마친 뒤 흘린 눈물에 대해서도 "쇼트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도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이 시간이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울컥했다"면서 "참아왔던 힘든 것이 터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소치올림픽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것과 관련해 "육체적으로는 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은퇴 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배운 것을 후배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싶다"며 지도자의 길을 선택할 뜻이 있음을 전했다.

/정선훈기자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오른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 /연합뉴스

女컬링 주니어세계선수권 결승 좌절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4강에 오른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캐나다에 패해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김경애(20) 김선영(21·이상 경북체육회) 김지현(18) 구영은(19·이상 의성여고) 오은진(21·의성스포츠클럽)으로 구성된 여자 주니어 대표팀은 4일 스위스 플림스에서 열린 4강전에서 캐나다에 6-7로 졌다.

9엔드까지 6-5 리드를 지킨 대표팀은 마지막 10엔드에서 2점을 빼앗기며 결승행 티켓을 눈앞에서 놓쳤다. 대표팀은 예선 풀리그에서 7승2패로 1위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suno@

선동열 "백업 선수층 두터워졌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14시즌 스프링캠프를 마무리했다.

선동열(51) 감독을 포함한 KIA 코치진과 선수단은 4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KIA 선수단은 1월 15일부터 미국령 괌(투수조)과 일본 오키나와(야수조)에 각각 스프링캠프를 차렸다. 이후 지난달 4일 투수조가 오키나와에 합류해 체력·기술 훈련으로 몸을 만들고서 한국·일본 팀과 연습경기(5승5패)를 벌여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선 감독은 "선수들 간에 치열한 경쟁으로 내외야 백업 선수층이 두꺼워진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정성훈기자

프로농구 전적 (4일)

팀	1Q	2Q	3Q	4Q	연장	합계
KCC	8	15	21	33	14	91
전자랜드	23	16	16	22	6	83
오리온스	23	14	17	26		80
인삼공사	20	19	16	16		71

프로배구 전적 (4일)

인삼공사	1	3	GS칼텍스
삼성화재	3	1	우리카드

추신수 시범경기 첫 출루

'출루 기계' 추신수(32)가 텍사스 레인저스 이적 후 공식 경기에서 첫 출루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4일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시범경기에 1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볼넷 하나를 골랐다. 1회말 첫 타석에서 2루 땅볼로 물러난 데 이어 3회말 2사 후 두 번째 타석에서 상대 투수 카를로스 카라스코를 상대로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얻었다.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치른 두 차례 시범경기에서 우익타에 그친 추신수는 3경기 만에 처음으로 1루를 밟았다. 5회 2사 후 나선 세 번째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잡혔고 6회초 수비 때 브래드 슈나이더와 교체됐다. 텍사스는 5-6으로 졌다.

/유순호기자